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혜 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 교육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영 인

# 학교 교육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이 혜 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영 인


# 인 준 서

최영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신혜정 

심사위원 이혜진 

심사위원 유주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공예는 실용성과 심미성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사용하는 실용품을 제작하는 미술 분야이다. 특히 공예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노작 행위라는 점에서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행위와 감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예는 촉각을 통한 자기표현의 예술인 것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현대 기계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예 교육은 삶과 밀접한 미술 교육 분야로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현재 미술 교과에서 공예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중등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공예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갖고 있는 공예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 것이다.

과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현재,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현재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공예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 공예 전공 미술 교사와 타 미술 분야 전공 미술 교사를 각각 2명씩 총 4명의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 현장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이 연구의 1장에서 공예 교육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공예 교육이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과거를 밝히고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2장에서는 공예의 개념과 역사를 살피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2장을 통해 오늘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예를 분석하고 현재 공예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교원 연수에 대한 현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은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예 교육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밝혔다. 5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한 인터뷰 자료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예 교육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공예는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삶과 밀접한 미술 분야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 노작 교육, 환경 교육, 전통 교육에 적합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술 교육에서 중요시 다루어져야 하는 미술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은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 다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공예 교육을 시행하기에 학교 현장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예 교육은 부족한 시수와 예산, 협소한 장소, 많은 학생 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시수, 예산,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학생에게 공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보조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공예에 대한 관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정부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수업 나눔 문화 형성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예 교육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서 연구자는 원활한 공예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사들은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교류 문화를 구축하여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를 밝혔다. 둘째, 교과 협의회를 통해 성공적인 미술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문화를 형성하여,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서, 현재 미술 교과와 시수를 늘리고 블록 타임제와 같은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학교 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예산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밝혔다. 다섯째, 교내에 미술 교과를 위한 적절한 환경적 설비를 마련해주어, 공예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을 통해 시행되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홍보해야 하며, 학교 중심의 공예 교육 프로그램 또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기 연수의 수와 종류를 확대하여 교사들이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원활한 공예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예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논 문 개 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주제 및 문제 .....	6
II. 이론적 배경 .....	8
1. 공예 교육과 삶 .....	8
1) 공예의 개념과 현대 공예로의 흐름 .....	9
2) 공예 교육의 필요성 .....	11
2. 미술 교과와 공예 교육 .....	13
1) 교육과정 내 공예 .....	14
2) 교과서 내 공예 .....	18
3. 공예 교육 활성화 정책 .....	26
1) 공예 교육 관련 정책 .....	26
2) 공예 관련 교사 연수 .....	28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33
1. 질적 연구 방법 .....	33
2. 연구 설계 및 절차 .....	34
3. 연구 참여자 .....	36
1) 연구 참여자 선정 .....	36
2) 연구 참여자 특성 .....	37

4. 자료 수집 및 분석 .....	39
1) 자료 수집 .....	39
2) 자료 분석 .....	41
5. 연구의 한계점 .....	41
<b>IV. 연구 결과 .....</b>	<b>43</b>
1. 연구 참여자 1 : 교사A .....	43
1)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	43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	46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	47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	48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	50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	52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	53
① 시수, 예산, 장소의 부족 .....	53
② 학생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	55
③ 실기 연수의 부족 .....	56
2. 연구 참여자 2 : 교사B .....	59
1)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	60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	62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	63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	64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	66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	67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	69

① 예산의 부족 .....	69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	71
③ 실기 연수의 부족 .....	74
3. 연구 참여자 3 : 교사C .....	77
1)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	77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	80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	80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	82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	84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	86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	87
① 시수의 부족 .....	87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	89
③ 실기 연수의 부족 .....	91
4. 연구 참여자 4 : 교사D .....	94
1)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	94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	98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	98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	100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	103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	104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	106
① 시수, 예산의 부족 .....	107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	111
③ 실기 연수의 부족 .....	114

V. 논의 .....	119
1. 교사 인식 개선의 방안 .....	119
1)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류 문화 형성 .....	120
2) 교과 협의회를 통한 학습 문화 형성 .....	122
2. 정부 차원의 개선 .....	125
1) 미술 교과 시수 문제의 개선 .....	125
2) 예산 지원 제도의 확대 .....	127
3) 장소와 환경의 개선 .....	130
4) 외부 기관과의 협력 마련 .....	131
5) 교원 실기 연수의 확대 .....	133
VI. 결론 .....	13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미술과 교과 핵심 역량 .....	14
〈표 2〉 미술교과서 공예 단원별 학습내용과 공예 영역의 비중 .....	20
〈표 3〉 24년 시도교육청 연수 계획 수립시 반영 요청 내용 .....	29
〈표 4〉 2023년 기준 공예 관련 교육 연수 .....	30
〈표 5〉 연구 참여자 특성 .....	38
〈표 6〉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실태에 대한 인터뷰 질문 구성 .....	40
〈표 7〉 연구 참여자 1 : 교사A의 연구 결과 정리 .....	58
〈표 8〉 연구 참여자 2 : 교사B의 연구 결과 정리 .....	76
〈표 9〉 연구 참여자 3 : 교사C의 연구 결과 정리 .....	93
〈표 10〉 연구 참여자 4 : 교사D의 연구 결과 정리 .....	117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설계 및 진행 절차 .....	35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예가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공예를 전공하던 당시, 대학교에서 진행한 학과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자의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들은 말이다. 당시 프로그램은 공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한 공예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마저 공예 수업을 들으면서도 공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추후 미술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조차도 공예를 전공하게 되면 어떤 진로가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중등 교육 기간 내에 학생들이 왜 공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지에 의문을 가지며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연구자가 경험한 한국의 공교육 과정에서 미술 교육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연구자가 느낀 오늘날의 공교육 과정에서의 미술 교육은 일부 미술 분야로 편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연구자가 학부 재학기간 동안 공예를 전공하며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경험에서는 표현 수업으로 공예를 다룬 경험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감상 수업에서 받은 공예교육도 극히 일부 도자, 섬유와 같은 공예영역과 전통공예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공예를 전공하기 이전에는 공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식기류나 의상만이 공예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미술교과에서는 많은 영역들을 다루며, 학생들은 초, 중, 고의 교육 기간 내에 다양한 미술 문화를 접하고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교과의 분야들 중 회화, 조소와 같은 분야는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

을 정도로 주로 다루어지는 미술 교육 분야이다(모인순, 2012). 하지만 서예, 판화, 공예와 같은 미술 교육 분야는 학생들 중 일부만이 해당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마저도 교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였거나 미술 교과영역 중 감상영역에서 학습하였다. 그 중 공예는 조소와 디자인 영역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교육 기간 내에 명확하게 다루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 짓기가 어렵다(모인순, 2012). 그렇기에 공교육 기간이 끝난 후, 학습자들은 공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공예의 분야 중 극히 일부만 아는 경향이 있다.

공예 교과는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목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교과서나 학습자의 교육 기간 내에 접하게 되는 공예는 폭넓은 공예 분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예 분야를 표현 영역에서 다루게 되었을 때, 주로 종이공예나 도자공예와 같이 특정 공예 분야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인다(이현양, 구승희, 2019).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서 또한 미술사에서 공예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옛 도자기나 금관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현대공예보다는 전통공예에 편향되어 있다(장현지, 2019). 이렇듯 교과서는 일부 공예 분야로 치중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여러 시기별 공예품 중에서도 전통공예를 위주로 감상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현대공예의 다양성을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듯 공예 교육의 내용이 전통공예로 치중된 점은 미술 수업에서 공예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미술 교육에서 공예 분야는 현재와 비교하여 더욱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서부터 공예 교과가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공예 교육은 일제 식민지하 시기에 공작과 간단한 수공을 교육하는 것에 포함되었다. 이후,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작 과정’에 포함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예교육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지도내용에서 공예 교육을 찾

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후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디자인 교육에 포함되어 공예 교육의 독자적 의미는 축소되어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미술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 3개의 영역으로 분류시켜 미술 교과에서 다루는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회화, 디자인, 서예와 같이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던 이전과 달리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성된 총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덕분에 판화, 애니메이션, 공예와 같은 다양한 미술 분야를 이전에 비해 보다 자주 수업시간에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미술교과서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영역의 미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인순(2012)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술 수업에서는 특정 미술 분야를 위주로 다루는 것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미술 분야 중 회화, 조소, 디자인과 같이 과거부터 중심이 되어 온 미술 분야에 비해 판화, 애니메이션, 공예와 같은 일부 미술 분야는 미술 교과에서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현장은 교육과정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공예 교육은 소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예 교과서와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또한 회화, 조소와 비교하여 공예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찾을 수 있다(김경아, 200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공예 분야에 대한 인식이 '공(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예는 기능적 측면과 미적 측면, 예술미의 형태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엄준상, 1990). 과거 공예는 기능적 성격을 강조하는 인식이 강했다. 공예가 기술과 장인들이 다루는 분야라는 인식에서 미술에 포함된다는 인식으로 변화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공예의 주된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기능적 성격을 강조한 실용에서 미적 성격이 주가 되는 미술공예로 변화한 것은 한성미술품제작소(1908)부터이다. 이 후 한국의 공예의 주된 가치에 대한 인식은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1932)에 이르러 미술공예로 비로소

정착되었다(최공호, 1996). 이처럼 공예의 기술적 측면에서 미적 측면을 주된 가치로 여겨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예 교육은 자연스럽게 미술 교과에서 비주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 교과서와 교육의 구성에서 공예의 비중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공예 교육의 가치를 과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모인순, 2012). 공예 교육은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전통문화교육을 위주로 다루어졌다. 미술 교과서에서 현대공예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적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한 공예 작품과 전통공예품을 다루고 있다. 공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술 교육과정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전통공예품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술 교과서 속 공예 분야에서 현대공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도로 낮기 때문에 현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학습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삶 속의 미술 문화를 학습하고 올바르게 향유하는 것을 미술 교육의 목적으로 둔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삶보다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예 교육은 자연스럽게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공예 교육은 현대 공예의 낮은 비중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현시대의 삶과 미래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예가 그 시대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공예의 교육적 가치를 완전하게 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미술 교육이 공예 교육의 가치를 과거로 초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예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등한시되었다. 때문에 공예 교육은 미술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과거에 미술 교육에서 잘 다뤄지지 못한 공예는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예는 기능적, 실용적,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전통성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현대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 최근 미술 교육의 방향은 삶을 위한 미술 교육에 있으며, 이는 공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미술 교육에서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이 중요하게 된 계기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로 미술은 패러디, 대중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삶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현대의 미술 문화는 이전보다 다양해진 매체를 통해 대중들의 삶 속에 녹아 들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보다 다양해진 매체들을 활용하여 현대미술과 미술 교육의 대상을 보다 확장시켰다(정희숙, 2009). 그 영향으로 미술 교육에서 1990년대 시각문화 미술교육이 등장하였다. 시각문화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과거의 미술작품과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뜻한다(김수진, 2013). 이는 미술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이미지를 다루는 것으로 미술 교육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예술이 생활화됨을 뜻한다.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매체 등을 통해 미술 문화를 해석하고 향유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아래 시각문화 미술교육으로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삶과 밀접한 미술 분야가 이전보다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삶과 밀접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어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근래 공포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미술과 교육과정(제2015-74호), 2015).

대상과 현상을 심미적으로 지각하여 성찰하며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인식한다. 삶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미술 매체를 활용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나아가 삶과 연결된 미술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향유한다(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별책13]미술과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에 따르면, 미술과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술 교육의 목표는 이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다.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필요한 조형을 만드는 공예는 삶과 맞닿아 있기에, 공예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공예품이 삶 속에서 활용되는 장면을 통해 미술 문화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로 존재하는지를 몸소 느끼며 미술 문화를 향유한다. 또한 미술이 더 이상 전문적인 분야이고 특정 사람들만이 소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미술은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으며 미술 교육 또한 삶 속에서 다양한 미술 문화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실생활과 깊게 연관된 공예 교육이 이전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공예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등 교과서의 미술 교과서의 내용 중 공예에 관한 부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술 교육현장에서도 회화, 조소와 같은 타 분야에 비해 공예는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모인순, 2012). 이에 연구자는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미술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공예 교육의 문제점과 교사에 대한 지원 방향,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 이전보다 활성화된 공예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2. 연구 주제 및 문제

이 연구는 중등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미술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공예교육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예 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활성화

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타 미술 분야와 비교하여 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공예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두는가?
2.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공예 수업 실태는 어떠하며 공예 수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3. 교육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공예 교육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공예 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자료를 조사하였다. 먼저 ‘공예 교육과 삶’에서 공예의 개념과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학자들의 주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미술 교과와 공예 교육’에서 2015,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예 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과서 내에 공예 단원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예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예 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 현재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공예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 근거와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예 교육과 삶

이 장의 ‘공예의 개념과 현대 공예로의 흐름’에서 연구자는 공예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현대 공예로 이르기까지의 공예의 역사적 맥락을 정리하였다. 이는 공예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공예의 전개 과정을 통해 독자가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공예 교육이 어떠한 배경 아래 정립되어 온 것인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서 선행 연구와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오늘날 미술 교육에서 공예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같은 공예의 교육적 가치를 통해 이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 1) 공예의 개념과 현대 공예로의 흐름

공예란, 기능적이고 미적인 요소에 의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형임과 동시에 예술미의 형태도 함께 추구하는 순수조형의 예술이다(류지영, 2016). 공예는 장인 공(工)과 재주 예(藝)를 합한 합성어로 이는 공예가 기술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원에서 드러나듯 공예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을 심미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실용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를 함께 지닌다(류지영, 2016). 공예의 실용적, 기능적, 심미적 가치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공예의 본질은 쓰임에 있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실용성과 시각적 효과, 기능적 측면이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렇기에 공예는 쓰임새를 바탕으로 미적인 요소가 들어가 만들어진 기물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감성적인 미술 분야로 볼 수 있다. 공예는 이와 같은 실용적, 기능적 가치로 인해, 오랜 인류의 역사 과정 내에서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공예는 디자인과 함께 응용미술로 분류되며 시각예술 안의 장르 간 경계가 흐려졌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장르의 해체로 미술 영역 간의 명확한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다(장현지, 2019).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예와 디자인에 대해 혼동하거나, 그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가 미술 장르 간의 해체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공예의 개념과 성격이 휘발된 것은 아니다. 공예와 디자인의 경계, 나아가 예술의 분야의 경계가 무너졌을 지라도 공예만이 갖는 차별화된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예의 개념과 성격을 알기 위해 디자인과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예는 인간의 수공 행위가 포함되며 기술적이고 작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B. 클라이트 저, 오근재 역, 1994). 때문에 공예는 손에 의해 제작되는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공예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등으로 분류된다. 즉 재료의 속성에 의존하여 재료를 가공하고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공예의 세부분야를 구분하는 것이다. 반면, 디자인에 대해 빅터 파파넵(Victor Papanek, 1927~1998)은 "디자인은 의미 있는 질서를 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이라 정의한다. 이는 곧 디자인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 분야 중 공예와 혼동하기 쉬운 제품디자인은 3차원의 제품을 대상으로 개념, 구조, 기능, 배치 등을 개선하거나 창작하는 행위로 정의된다(류지영, 2016). 때문에 디자인은 목적에 맞는 설계와 생산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예는 제작자의 신체를 통해 채택한 재료로 조형성을 드러내며, 디자인은 신체를 통하기 보다는 제작 목적에 따라 구조를 설계하여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예와 디자인은 개념적 측면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공예는 과거부터 현대로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역사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생활용품, 신분에 따른 장신구, 의례용 공예품 등 다양한 목적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강민기 외, 2020). 하지만 근대기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일제의 식민지 정책 아래 한국의 공예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광복 이후에도 1960년대 이전까지도 교육분야에서의 공예는 디자인과의 개념이 혼재되어 독립된 교육영역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승열, 2001). 그럼에도 이후 서구 문물과 이념을 적극 수용하면서부터 한국의 공예는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극복을 위한 발걸음을 땀다(이승열, 2001). 그렇게 1960년대에 이르러 공예와 디자인의 분화를 이루었다(이승열, 2001). 이후에도 기능성과 심미성 사이에서 공예의 진보는 유보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 탈 장르화와 조형주의와 같은 심미적 측면이 공예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며 오늘날의 한국 현대 공예까지 이르게 되었다(이승열, 2001). 이렇게 자리잡은 1980년대 이후의 공예를 현대 공예로 부른다. 현대 공

예는 표현 경향에 따라 크게 전통공예, 공예디자인, 예술공예로 분류한다(이수철, 윤미희, 2011). 전통공예는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공예품을 창조하는 공예로, 과거에 제작된 공예품을 모방하여 재현하는 공예인 전승공예가 이에 포함된다(류지영, 2016). 공예디자인은 근대 산업사회부터 대량 생산된 공예의 기능적 가치를 주로 삼은 용품들을 의미한다. 공예디자인은 공예품 제작을 위한 계획부터 제작까지, 수가공과 기계가공을 결합하여 심미성과 감성을 담은 공예품을 생산해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이수철, 윤미희, 2011). 예술공예는 작가의 가치관과 정신을 담아 표현하는 공예로, 이전까지 공예의 전통성, 실용성에서 벗어나 작가의 자유로운 정신성 표출을 중시한다(이수철, 윤미희, 2011).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기에 예술공예는 재료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과거부터 이어져온 현대 공예는 표현 경향과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이 장에서는 공예의 개념과 한국에서 과거의 공예에서 부터 현대 공예로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공예가 왜 교육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공예 교육의 필요성

공예 교육의 필요성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삶을 위한 미술 교육과 연관성이 깊다. 실생활, 즉 경험으로서 미술 교육에 대해 존 듀이(J. Dewy, 1885-1952)는 일상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은 연속성을 가지고 생명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경험의 원리라고 한다(오은혜, 2013) 또한 예술 대상을 바라보듯 동일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켜 경험의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은혜, 2013). 이는 일상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의 관련성을 드러내준다. 듀이는 ‘예술적 경험’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하면서 겪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이승열, 2000). 그러한 측면에서 듀이는 이상

적 예술관에 대해 디자인과 공예와 같은 도구적 예술이 삶과 맞닿아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김연희, 2008). 이는 공예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을 심미적으로 제작한다는 측면과 공예가 수공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듀이의 ‘예술적 경험’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듀이는 학교생활을 통해 이루게 되는 학습자의 ‘예술적 경험’이 미적 성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학교 교육이 예술적, 심미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말한다(오은혜, 2013). 이러한 듀이의 관점에서 공예 교육은 충분한 교육적 가치와 그 필요성을 갖는다.

공예 교육의 필요성은 현대에 이르러 더 부각된다. 산업혁명의 기계문명 시대부터 현대의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기술로 이르기까지의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류는 기계, 기술에 의존하고 편의성을 추종하게 되었다. 이는 심화되어, 인간의 정신성과 감성을 메마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는 한다(전광수, 2003). 그러한 측면에서 공예는 기계 기술을 벗어난 신체를 통한 노작 행위라는 성격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가 어릴 적 무언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경험을 쌓기 이전까지 촉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대상을 인지한다. 쓰다듬거나 어루만지는 행위를 통한 촉각은 이면에 사랑의 표현이라는 감정과 정서적인 안정감, 만족감을 주는 순수한 촉각적인 행위이다(전광수, 2003). 이처럼 촉각을 통한 감성의 계발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공예에서의 재료의 본성은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으며, 질 속에서 촉감이 체득된다(전광수, 2003). 공예가가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을 알고 그 감각을 체득하는 것 모두 촉각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촉각을 통한 조형 교육은 바우하우스 교육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제1기 교육과정 중 예비과정에서는 재료연구를 통해 재료의 취급법을 익히고 재료의 상호관계를 교육한다(송숙남, 1995). 예비과정은 본 과정

으로 가기 이전 6개월 간 거치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바우하우스는 재료의 물성, 성질과 같은 촉각의 훈련을 중요시 여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목재,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재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료의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추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나갔다(전광수, 2003). 이는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본래 자신의 능력을 일깨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신희경, 2020). 바우하우스의 기초 교육과정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재료, 물성을 통한 촉각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 모든 조형 예술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학습자가 수많은 재료를 경험하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재료의 물성을 탐색하는 것은 학습자의 잠재된 예술적 역량을 이끌어 내도록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촉각을 통한 감정의 계발을 도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도야를 이끌 수 있다.

공예는 수공의 예술로서 다양한 재료를 손으로 느끼고 그 재료의 특성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노작 행위를 거쳐 삶에 필요한 심미적인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제작자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로 인간 감성을 채워준다. 동시에 조형의 기본이 되는 재료를 스스로 익히는 과정에서 겪는 다채로운 경험과 예술 활동은 공예가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된다.

## 2. 미술 교과와 공예 교육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내 공예’를 통해 2023년 현재 적용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25년에 교육 현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인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 공예’에서 교과서와 공예 단원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교육과정 내 공예

공예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 공예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부터는 총론에서 제시한 인간상과 역량을 연계하여 교과별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간주된다.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아직 현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의 공예 교육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의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

〈표 1〉 미술과 교과 핵심 역량(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2022)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 한다	심미적 감성 역량	대상과 현상을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기른다.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한다.	시각적 소통 역량	다양한 매체에 기반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소통한다.
창의 융합 능력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타 분야의 지식, 기술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창의 융합 역량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한다.	공동체 역량	미술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의 발전 참여한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협력한다.	정체성 역량	미술을 매개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표에서 드러나듯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용어상의 변화만 있을 뿐, 미술 교과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각론에 기입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생태 감수성’ 함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 둘째, ‘공동체 및 사회 문제’를 미술 교과 수업의 주제로 하여 민주시민의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가상현실’을 언급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이에 연구자는 공예교육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본다. 특히 디지털 매체의 본격화로 표현 매체의 폭이 확장되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공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학습자들이 마주하게 될 공예 작품 또한 이전보다 환경을 고려한 작품, 공동 작업을 통한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음에도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 핵심 역량의 유사성이 깊다. 이는 미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유사함을 뜻하나,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적용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와 기존 미술 교과의 보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교육현장에 적용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내 공예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최근 미술 교육의 방향인 ‘삶을 위한 미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는 문구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미술 교육의 사회문화적 역할의 요구를 나타내는 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였다(장현지, 2019). 초등학교 미술에서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중학교 미술에서는 미술의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미술은 '체험', '표현', '감상' 총 세 영역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첫째, '체험' 영역에서는 직업 세계, 자신의 삶과 미술의 관계와 같이 타 분야와 미술을 연결하는 융합 능력을 함양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7). 둘째, '표현'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탐색, 표현 과정의 계획 및 점검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7). 마지막으로, '감상'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지어 작품을 해석하고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7). 고등학교 미술은 앞선 중학교 미술의 세 영역과 동일하게 제시한다. 다만 중학교 미술보다 더 학생주도적인 성격을 띄며 심화된 미술 능력 함양을 중점으로 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성취기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고등학교의 '체험' 영역에서는 자신의 삶과 미술, 진로를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능력과 창의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표현' 영역에서는 창의적 표현과 연계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미술 활동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7). 마지막으로, '감상' 영역에서는 중학교 '감상' 영역에서의 활동에서 추가하여, 비평 관점에 근거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통해 학습자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을 살펴보았다. 중학교 미술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미술은 학습자들에게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과 창의융합능력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중학교 미술보다 더 심화된 미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에서 드러난 미술 교과에서 다루는 공예교육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미술에서 공예교육은 학습자가 공예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형식과 기법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장현지, 2019). 전문적인 내용의 공예 교육보다는 다양한 공예의 기초를 다루어 여러 공예를 접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미술에서는 표현 매체를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는 것으로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는 공예뿐만 아니라 회화, 조소, 디자인 등 여러 장르의 표현 매체를 연계하여 표현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예에서 나아가 새로운 기법과 매체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 공예는 전통적인 공예작품과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된 현대 공예작품을 통해 전공 실기의 시각의 폭을 확장시켜준다는 특징이 있다(장현지, 2019). 이는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예를 교수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공예의 종류와 공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둔다.

## 2) 교과서 내 공예

이 장에서는 교과서 내에서 공예가 얼마나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책이며, 교사가 수업을 구성할 시에 활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교과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의 자료이다. 교과서는 앞

서 살펴본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그렇기에 교과서 또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체험’, ‘표현’, ‘감상’의 3영역으로 분류된다.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25년도에 중등교육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교과서는 총 14종이며 1,2권으로 분권화 된다.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미술’ 8종, ‘미술 감상과 비평’ 3종, ‘미술 창작’ 5종, 동시대미술, 미술사, 미술 이론이 각각 1종씩이다.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별 교육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다양성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공통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중학교 미술교과서에서는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 칠보공예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공예를 제시하고 있다. 총 14종의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공예 단원의 구성 비중을 보면 주로 ‘표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장현지, 2019). 교과서의 ‘표현’ 영역 내의 공예 단원은 공예의 기법과 제작과정, 제작활동을 다루며, 주로 도자, 섬유, 종이공예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장현지, 2019). ‘체험’ 영역에서의 공예는 순수 창작 분야, 디자인과 공예 분야에 포함되어 공예 관련 직업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장현지, 2019). ‘감상’ 영역에서는 시대별로 발전한 미술 문화와 공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의 전통 공예품들을 소개하고 있다(장현지, 2019). 다음 <표 2>는 출판사 별 공예 단원의 학습내용과 공예 영역의 비중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미술교과서 공예 단원별 학습내용과 공예 영역의 비중(장현지, 2019)

출판사	단원명	학습내용	영역	비중
(주) 교학도서 1,2	5. 미술과 문화	- 한국미술: 시대별 대표 공예 - 중국미술: 도자공예 - 일본미술: 임진왜란 이후 도자문화 - 인도미술: 무굴제국	감상	6.5 %
	4. 미술과 표현	- 금속, 도자, 목, 섬유, 종이, 기타 공예 - 디자인, 공예분야의 직업: 금속 공예가, 목공예가, 설탕 공예가	표현 체험	
(주) 금성출판사 1,2	I. 미술과 체험	-순수예술분야의 직업: 공예가, 도예가	체험	8.8 %
	II. 미술과 표현	- 금속, 도자, 목, 섬유, 종이, 기타 공예 - (표현 활동)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 가죽팔찌 만들기	표현	
	III. 미술과 감상	- 우리나라 시기별 대표 공예 작품 (신라-금속공예, 고려- 금속공예, 칠기공예, 도자공예, 조선- 도자공예, 칠기공예, 목공예) - 중국미술: 수~청시대 도자공예 - (활동) 퍼즐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미술, 퍼즐로 알아보는 아시아 미술	감상	
(주) 다락원 1,2	IV. 미술문화의 이해	- 한국미술: 선사~조선시대 공예품 - 중국미술: 도자, 금속, 염직, 칠보공예	감상	7.6 %
	II. 전통과 현대	- 금속, 도자, 목, 규방, 염색, 종이, 칠보, 유리공예	표현	

(주) 동아출판사 1,2	1. 빛나는 나의 세상	- 공예와 디자인 분야 직업: 도예가, 섬유 공예가	체험	7.2 %
	4. 미술로 떠나는 여행	- 한국미술: 시대별로 발달한 공예 - 중국미술: 도자, 나전칠기, 섬유공예 - 중앙아시아미술	감상	
	4. 전통 미술의 향기	- 금속, 도자, 목, 섬유, 한지, 현대 공예 - (주제로 보는 미술) 도자기의 변천	표현	
(주) 리베르스쿨 1,2	5. 미술의 변천과 맥락	- 선사시대부터 19c 이전까지 미술의 역사 (연대표에 해당하는 공예품을 사진자료로 제시) ※ 미술사에서 공예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음	감상	2.0 %
	2. 전통미술의 표현과 감상	- 금속, 도자, 목, 규방, 염색, 종이, 죽세, 왕골, 칠보 공예	표현	
(주) 미래엔 1,2	V. 전통미술의 아름다움	- 금속, 도자, 목, 섬유, 유리 공예	표현	7%
	IV. 미술과 직업	- 공예, 디자인 분야의 직업: 나전칠기 장인 등	체험	
	VI. 미술과 문화	- 한국미술: 시대별 공예 - 중국미술: 도자공예	감상	
미진사 1,2	17. 아름다운 슬로, 즐거움을 만든다	-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 공예	표현	8.3 %
	12. 우리 미술 탐험하기	- 시기별 공예품 (신라, 고려, 조선시대)	감상	
	13. 동양 미술 탐험하기	- 중국미술: 도자공예 - 일본미술: 도자공예		

(주)비상교육 1,2	2. 미술과 소통	- 순수미술 분야의 직업: 도예가	체험	5.1 %
	7. 미술의 흐름	- 한국미술: 시대별 공예품 - 중국미술: 도자, 칠기 공예	감상	
	5. 생활 속의 미술	- 금속, 도자, 목, 섬유, 지, 칠보 공예	표현	
씨마스 1,2	4. 전통의 멋을 이어서	- 금속, 도자, 목, 섬유, 유리, 화각, 현대 공예	표현	7.5 %
	6. 미술의 변천	- 한국미술: 시대별 공예품 - 중국미술: 도자공예	감상	
	3. 전통 미술의 맥을 이어서	- 놀이문화, 음식문화 관련 공예	표현	
	5. 미술과 다양한 분야	- 미술과 직업 : 도예가	체험	
(주)아침나라 1,2	11. 디지털과 미술의 만남	- (활동) 3D 프린터를 이용한 현대 공예 제작하기	표현	6.9 %
	14. 내가 만드는 전통공예	- (활동) 매듭, 한지, 염색 공예		
	5. 미술과 직업	- 공예 직업 분야: 공예가	체험	
	16. 전통 공예의 미를 찾아서	- 금속, 도자, 목, 염색, 한지 공예	표현	
	18. 한국 미술의 여정	- 시대별 공예품	감상	
	19. 동양 미술의 자취	- 중국미술: 도자공예		

(주)와이비엠 1,2	3-1. 다양한 미술 재료	- 금속, 도자, 목, 유리 공예	표현	3.9 %
	1-1. 우리나라 미술 산책	- 시대별 공예품	감상	
	1-2. 동양 미술의 흐름	- 중국미술: 도자, 칠기 공예 - 일본미술: 도자공예		
	1-5. 미술 직업을 찾아서	- 순수창작 분야의 직업: 도예가, 공예가	체험	
(주)지학사 1,2	1. 체험하는 즐거움	- 미술 직업인 탐방: 도예가 - 디자인, 공예 분야의 직업: 공예원, 공예가	체험	7.2 %
	2. 표현하는 아름다움	- 금속, 목, 섬유, 종이, 현대 공예 - 도자 공예를 개별적으로 좀 더 비중있게 다룸	표현	
	3. 감상하는 마음	- 한국미술, 중국미술: 도자공예	감상	
(주)천재교과서 1,2	1. 미술과 만나다	- 순수창작, 디자인 관련 분야의 직업: 도예가	체험	7.7 %
	6. 전통에 물들다	- 섬유, 한지 공예의 작품 - 금속, 도자 공예의 작품과 기법	표현	
	7. 미술여행을 떠나다	- 한국미술: 시대별 공예품 - 중국미술: 도자공예 - 일본미술: 무로마치시대 공예	감상	
(주)해냄에듀 1,2	I. 미술, 세상과 소통하다	- 디자인, 공예 분야의 직업: 공예가	체험	6.7 %
	II. 미술이 들려주는 이야기	- 한국미술: 시대별 공예품 - 중국미술: 도자공예 - 동남아시아: 공예품	감상	
	II. 마음을 빚고 생각을 색칠하고	- 도자, 목, 섬유, 종이 공예	표현	

출판사 별 교과서 내 공예 영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모두 9% 이내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리베르스쿨과 (주)와이비엠의 경우 각각의 비중이 2%와 3.9%로 타 출판사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공예 영역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4종의 교과서 모두 ‘감상’ 영역의 미술사에서 시대별 공예를 소개하고 있으나, 공예 영역의 비중이 가장 낮은 (주)리베르스쿨만이 미술사에서 별도로 공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도판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주)금성출판사와 미진사의 경우 각각 8.8%와 8.3%로 타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공예 영역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미진사의 경우 ‘표현’, ‘감상’ 영역에서만 공예 영역을 다루고 ‘체험’ 영역에서는 공예 관련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에서 공예는 주로 ‘체험’ 영역에서는 관련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표현’ 영역에서는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공예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에서 제시한 활동은 주로 도자, 종이, 섬유 공예이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공예를 동등한 비중으로 경험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상’ 영역에서는 시대별, 국가별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다. ‘감상’ 영역에서 한국미술사에서만 공예를 다루고 서양미술사에서는 주로 회화 작품을 다루기 때문에 공예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장현지, 2019).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 공예 단원의 내용은 도자, 섬유, 종이 공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칠기, 유리 공예와 같은 공예는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체험’ 영역에서는 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기보다는 ‘공예가’, ‘도예가’와 같은 직업으로 간략화시켜 소개하고 있다. ‘감상’ 영역에서는 한국미술사에서 공예를 다루기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현대 공예품보다 전통 공예품을 위주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종의 미술 검인정 교과서에서 공예 영역을 재료에 따른 분류로써 금속, 도자, 목, 섬유, 기타 공예를 모두 제시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주)다락원, (주)동아출

판, 미진사, 씨마스, (주)지학사, (주)천재교과서로 총 7종이다(장현지, 2019). 이 7종의 교과서는 공예 영역의 비중이 14종의 교과서 공예 영역 비중의 평균인 6.6%보다 많다(장현지, 2019). 공예 영역 내에서도 도자, 섬유 공예와 같이 특정 세부 공예 내용에 관한 부분의 비중은 교과서 별로 상이하고 고루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다양한 공예를 고루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미술 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공예 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 중 학생들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김경아(2006)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참고작품을 제작해본 경험에 관한 조사의 결과로 58.7%의 학생들이 제작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과서 내의 공예작품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3%가 해당하였다(김경아, 2006).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의 공예 단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양한 공예의 종류를 고루 다루기보다는 일부 공예로 편향되어 있다. 둘째, 공예에 관련한 여러 직업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현대공예와 전통공예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아, 자칫 학생들에게 공예는 전통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미술 교과서들이 소개하는 공예 단원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14종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공예 단원이 전체 10%에도 미치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전체 미술 교과에서 공예의 비중이 낮음을 보여준다.

### 3. 공예 교육 활성화 정책

이 장에서 연구자는 현재 공예 교육이 어떠한 정책적 배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예 교육 관련 정책’을 통해 오늘날 공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정책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공예 관련 교사 연수’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지원으로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 공예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현재 효과적인 공예 교육을 위해 어떠한 주제의 연수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 1) 공예 교육 관련 정책

앞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미술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공예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현재 공예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문화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예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 문화산업진흥원과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이현양, 2019).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아카데미, 공예디자인 교육 사업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2023년 실시한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중 7.5%가 공예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취미교육(62.3%)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예 교육 사업의 참여자는 일반인이 7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예 종사자(7.5%), 창업 희망자(6.6%) 순으로 공예 교육에 참여한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이 같은 공예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 주로 사업장 내 공방이 86%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문화센터 및 직업교육센터(11.8%)나 공예 프로그램 운영 매장(1.3%)에서도 공예 교육을 진행한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이는 공예가 및 공예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예 교육이 사업장 내 공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도 공예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학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전통공예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과 ‘공예, 디자인 비즈니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이현양, 2019). 2022년에는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솔찬누리화랑’에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이상호, 2022). 해당 전시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전통공예품의 재해석을 주제의 학생 작품들을 전시했다. 현재는 <행복한 공예교육>의 명칭의 공예교육 사업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인 2022년에는 전국 10개 수행단체에서 14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1625명의 인원이 공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공예가와 문화취약계층을 연결하여 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예를 접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로 판매전을 진행하여 교육 참여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공예를 통해 감상자와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예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행복한 공예교육>에서는 한지, 섬유, 가죽, 금속, 도자 공예 등의 폭넓은 공예 분야를 다룬다. 이에 나아가 현대 예술공예의 재료적 다양성을 경

힘할 수 있도록 아크릴, 레진 등의 여러 재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대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취약계층과 다양한 연령대가 공예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통공예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는 <전통생활문화교육>의 명칭으로 2020년부터 미취학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전통문양, 놀이, 한복, 한지문화와 함께 공예,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며 나아가 전통문화와 관련한 교육용 키트,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다.

## 2) 공예 관련 교사 연수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받는 교원 연수는 이후 교사의 교수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공예와 관련한 교사의 연수에 대해 살펴 고자 한다. 연수란, 비교적 단기간에 행해지는 집중적인 학문 연구 과정을 뜻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6장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 수행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 연수는 교사라면 일정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교원 연수는 연수 방식 및 장소 등에 따라 크게 집합 연수, 원격 연수, 혼합형 연수로 분류된다(교육부, 2023). 이 중 원격 연수는 물리적 공간이 분리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자, 학습자, 매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를 뜻한다(교육부, 2023).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세부 목록은 중앙교육연수원의 2023년 연수 운영 과정 세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분류한 집합 연수는 교육 전문 직무 교육 및 공직자 직무 관련 연수와 같은 정책이해 및 행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교수학습역량, 정보기술역량을 기르고 교과별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원격 연수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연수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이 교사 및 교육 분야 종사자에게 연수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과 티처빌과 같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설 업체에서 원격 교육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도별 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및 16개 기관의 종합교육연수원, 대학부설교육연수원이 있다. 교원 연수는 교육 현장과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사가 교육 정책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교육부, 2023). 이에 현재 개설된 교원 연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3>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24년 시도교육청 연수 계획 수립 시 반영 요청 내용에 관련한 표이다.

<표 3> 24년 시도교육청 연수 계획 수립시 반영 요청 내용(교육부, 2023)

구분	주요내용
주요 정책	-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교권 확립,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전문성 강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 과정, 고교성취평가제, 복무(겸직 관련), 학생 마약류 예방 등
부처 요청	- 기후 및 탄소중립 교육(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표 3>에서와 같이 교원 연수는 시도교육청 상황 및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설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개설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2022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AI, 평화, 환경과 같은 주제로 개설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 명시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학교 교육 혁신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에 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을 반영한 연수 과목 이외에도 교과별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을 위한 연수 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술 교과 관련 교육 연수 중 공예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은 중앙교육연수원,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 티처빌에서 2023년 진행되고 있는 공예 관련 교육 연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4> 2023년 기준 공예 관련 교육 연수

연수원 명	연수 제목
중앙교육연수원	-메이커교육의 이해와 활용, 상상을 현실로! -MAKER 교육의 실제 -3D프린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	-향기로운 반짝임을 만나는 곳, 힐링 캔들 공방 -실전 클래스! 감성을 엮는 힐링 시간, 라탄공예 -감성을 엮는 시간, 라탄 공예 -실전 리본아트! 핸드메이드 감성 소품, 리본공예 -핸드메이드 감성 소품, 리본공예
티처빌	-스쿨 업사이클링:환경놀이 -친환경 Bro 황대리x줄리안의 생활 속 업사이클링으로 탄소제로 만들기 -누구나 쉽게 만드는 종이꽃

<표 4>는 2023년 기준으로 개설된 교육 연수 중 공예와 관련된 만들기, 3D 프린터와 같은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한 2023년 원격 교육 교육 연수 운영 과정 세부 현황에 명시된 ‘메이커교육’은 결과물의 산출 과정에서 자기주도성, 재미, 타인과의 교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윤혜진 외, 2019). 현재의 메이커교육은 코딩교육과 키트

를 활용한 특정 기술 습득을 강조한다(윤혜진 외, 2019). 때문에 공예 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수공 작업이 포함되기에 <표 3>의 공예 관련 교육 연수에 포함하였다. 메이커교육을 제외한 교육 연수는 3D프린트, 라탄, 리본, 캔들과 같은 기타공예, 지공예, 업사이클링 공예가 있다. 대체로 도자, 섬유, 금속 공예와 같은 미술 교과서 내에 주로 분포하는 공예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공예 분야에 대한 교육 연수가 모자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과 정책을 반영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은 충분하나 교과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과목 중 공예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 연수의 문제는 다양한 미술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미술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 교과의 경우, 다양한 미술 분야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교사가 특정 미술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미술 교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실기 연수가 요구된다. 현재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실기 연수나 과목 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연수보다 2022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강조한 환경, AI, 디지털 교육 등과 관련된 연수와 다문화,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 현장 중심의 연수가 대다수이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대한 교사의 적응과 이에 맞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과목 별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재교육 목적의 연수 또한 중요하다. 현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미술 교과의 경우 폭넓은 실기 연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예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일부 공예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이다. 이러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사의 공예 경험을 부족하게 만들어 다양한 미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아가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저하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예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상에서의 예술적 경험을 촉진시키고 수공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촉각을 통한 감성의 계발을 돕는다. 이는 공예가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또한 이러한 공예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예의 종류와 성격을 다루고 여러 재료와 용구를 탐색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 내에서 공예는 그 교육적 가치와 필요에 비하여,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도 공예를 제대로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예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중등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공예 교육을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예 교육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공예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과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이유에 관해 다루었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 및 절차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 연구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과정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방법 대해 밝혔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 1.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란,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이러한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경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삶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김윤옥 외, 2009). 이 연구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재직 중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예 교육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미술 교육의 가치문제에 대한 자각과 반성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기에,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황기, 2005).

이 연구는 교사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의 학교 현장을 밝히고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의 실태를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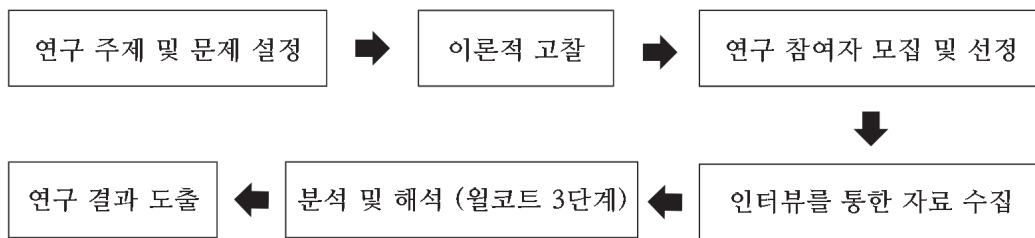
연구에 해당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공예 교육 경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한 공예 교육의 실제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독자들이 공예 교육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도록 돕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서술을 얻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인터뷰 방법으로 인터뷰의 내용이 연구의 데이터가 된다(유기웅 외, 2018). 인터뷰 유형 중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엄격한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채택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설계 및 절차

이 연구는 연구자의 과거 공예 교육 경험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 주제 및 문제를 도출한 후, 2023년 6월 연구 주제에 맞추어 질

적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3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 절차를 거쳐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중등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미술 교사와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2023년 10월 연구에 참여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 1회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교사 커뮤니티에 모집 글을 통해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는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수집한 것이다. 2023년 12월 수집된 자료들을 월코트의 기술-분석-해석 방법으로 분석한 후, 연구 주제 및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설계 및 절차 단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및 진행 절차

월코트의 3단계 절차 중 첫 번째, ‘기술’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한 자료인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기술’ 단계에서 제시한 그들의 경험을 객관화시킨다.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이 후 있을 ‘해석’ 단계에서 정리한 연구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토대

로 어떠한 현상을 재조직화하여 일반적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해석’ 단계에서는 객관적 경험과 연구자의 주관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유기웅 외, 2018). 때문에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설계와 절차를 통해, 중등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어떠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공예 교육에 미치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공예 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 3.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중등 교육 현장의 공예 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고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공예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는 국내 온라인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교사 커뮤니티에 모집 글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이 후 모집한 연구 대상자 중 현재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미술 교사들 중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와 다른 미술 분야를 전공한 미술 교사로 2가지의 표본집단의 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가지의 표본집단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와 다른 미술 분야를 전공한 미술 교사가 각각 가진 공예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이루

어지는 실태와 공예 교육에 대한 교육적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등 교육 현장에 해당하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 교사 중 공예 전공의 미술 교사 2명과 타 전공의 미술 교사 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미술 교사로서 공예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공예 교육의 실제와 그들을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기에,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유기웅 외, 2018).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수집하여 연구하는 방법인 ‘최대편차 표집선정’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미술 세부 전공 분야와 교육 경력을 기준으로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기준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이다. 이 연구는 현재 재직 중인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연구일지라도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고자 실명과 나이 및 재직 중인 학교명과 같이 개인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기 위해 교사A, B, C, D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표기하였다. 아래의 <표 5>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한 표이다.

〈표 5〉 연구 참여자 특성

번호	연구참여자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	교육 경력	미술 전공 세부
1	A	중학교	34년	서양화
2	B	고등학교	2년	회화
3	C	중학교	2개월	도자 공예
4	D	중학교	6년	목칠 및 섬유 공예

참여자 A는 공예 외 다른 미술 분야를 전공한 교사이다.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중등 교육 현장에서 34년 재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깊다. 현재는 중학교에 재직 중이다. 전공과 관련한 경험을 통해 수채화 작업을 선호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수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 B는 공예 외 다른 미술 분야를 전공한 교사이다.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회화를 전공으로 했기에, 동양화와 서양화를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중등 교육 현장에서 2년 재직하였으며, 2년 모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참여자 C는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이며, 대학교에서 도자 공예를 전공으로 하였다. 중등 교육 현장에서 2개월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중학교에 재직 중이다. 참여자 D는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이며, 대학교에서 목칠과 섬유 공예를 전공하였다. 학부 시절 디자인에도 관심이 깊어 디자인을 부전공으로 하고 디자인 공예 교직 과정을 이수했다. 이 후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진학하여 미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6년째 재직 중에 있다. 이 중 3년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다. 참여자D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 및 그림 작업을 이어가며 미술 교과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다.

## 4. 자료 수집 및 분석

### 1)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인터뷰 내용의 녹음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 도구로 채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실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녹음을 통해 기록하였으며, 이후 녹음된 기록은 전사 과정을 통해 문서화한 것이다.

#### ①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를 통한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의 방법이다. 때문에 이를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총 1회 실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는 구조화된 질문 목록을 준비한 후, 연구대상자의 반응과 답변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되는 상세한 질문 전반은 이 논문의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인터뷰에 사용되는 질문을 다음 <표 6>의 내용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실태에 대한 인터뷰 질문 구성

번호	체크 항목	세부 질문
1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개인적으로 공예에 관심이 있는가? 2)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공예 분야가 있는가? 3) 공예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학교 현장에서 공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1) 공예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2) 공예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어떠한가? 3)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4) 타 미술 교사 및 비교과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 5)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
3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어려움	1)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2)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연구자는 수집된 응답을 분석하여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현재 공예 교육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절차를 따른다.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인터뷰 녹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료분석의 방법이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개방 코딩’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름을 부여하며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두 번째, ‘범주화’는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2018).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과정에서 범주화된 자료가 잘 구성되었는지 ‘개방 코딩’ 전의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유기웅 외, 2018). 이러한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혹은 원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범주를 수정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 5.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교사의 전공에 따라 각각 공예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공예 교육에 대한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공예 전공 미술 교사와 공예 외에 다른 미술 분야를 전공한 미술 교사를 모집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때 연구 참여자 모두를 별도의 보상 없이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모두가 공예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연구는 공예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예를 전공한 교사C의 경우 교육 경력이 2개월이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하다. 때문에 교사C의 학교 현장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수업의 사례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에 제약이 있음을 밝힌다.

##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인터뷰에서 녹취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4명의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피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실재를 확인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공예 교육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알아보고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연구 참여자 1 : 교사 A

교사A는 대학교 재학 시절 서양화를 전공으로 하였으며 수채화 작업을 선호하여 현재에도 개인적인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34년간 재직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깊다. 현재는 중학교에 재직 중이며, 학교 내 미술 교사는 교사A만 있다.

#### 1) 공예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공예에 대한 교사의 흥미와 관심을 확인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 교사A는 본인이 전공한 서양화 작업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섬유 공예에 해당하는 염색과 도자 공예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과거에 섬유 공예와 도자 공예 작품을 제작해본 경험이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교사A는 공예가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A는 공예 수업을 하게 된다면 섬유 공예를

다루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A의 답변은 개인적으로 공예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교사A는 공예보다는 회화를 가장 선호하며, 회화 중 수채화 작업을 즐긴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A의 미술 분야 선호도는 공예에 대한 흥미는 높지만, 타 미술 분야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A에게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A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의 공예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첫째, 공예 교육은 삶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교사A는 본인이 공예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실용성에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공예와 삶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사A는 공예가 미술과 삶의 연관성을 반영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교사A: 공예는 실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 분야와 다르기도 하고 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모든 미술 분야가 삶이랑 큰 관련이 있고 살아가면서 전반에 펼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향유하고 즐기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 공예 교육은 진로지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A는 진로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의 판매를 통해 작품을 상업화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공예의 실용적 성격은 실용품을 사고 파는 시장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교사A는 공예 교육이 타 미술 분야보다 직업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A: (공예는) 직업화. 그러니까 진로지도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예는 상업화가 가능하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 진로지도에 유리한 것 같아요. 공방을 연다던지, 제작해서 판매한다던지..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예 교육은 시각과 촉각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사A는 공예가 시각, 촉각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삶과 미술에서 큰 연관성을 갖기에, 공예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사A: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은) 의미가 당연히 있죠. 직접 보고 만지고 시각이나 촉각에도 큰 연관이 되니까요. 학생들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신체, 정신적인 것들도 길러줄 수 있어서 (공예 교육은)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어서 교사A는 현재 미술 교과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주제에 대한 질문에서 앞서 공예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진로지도를 언급하였다. 또한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과 미술의 연관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앞서 얘기한 공예 교육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 내에서 공예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사A: 공예도 미술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 많이 못하는 경향이에요. 저는 이게 시수,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공예 수업은 거의 시도도 잘 못해요. 시간이 1시간인데 어떻게 공예를 하겠어요.

전반적으로 교사A는 교사로서 공예 교육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A가 언급한 시수 문제와 같은 학교 현장의 여러 요인으로 공예 교육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한 부분에서, 현재 교사들이 공예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A는 공예가 가진 교육적 가치나 중요성에 비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예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현장의 요인에 관해서는 이후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이 장에서는 교사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학교 공예 교육이 다양한 공예 분야 중 어떤 공예를 위주로 다루는지, 어떠한 교수방법으로 다루어지는지와 같은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A는 공예 수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나, 과거 미술 교과가 2시수 교과목이었을 시기였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시수가 감소됨에 따라, 교사A는 표현 영역에서 공예를 실기 수업으로 다루기보다는 감상 영역에서 다루거나 표현 영역에서 용구, 제작과정 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만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교사A는 이마저도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공예를 이론 수업으로 다루었을 때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거 염색 공예 수업에 대해 어떠한 기억이 나는지 질문하였다. 하지만 교사A가 진행했던 공예 실기 수업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전의 오래된 교육경험이라는 점에서, 교사A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교사A가 당시 기억을 떠올렸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해소된다면 공예 실기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교사A : 일주일에 학년마다 2시간 썩 수업했을 때는 염색 공예 같은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시수도 부족하고 도구들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꿈만 꾸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교사A는 시수와 같은 교육 현장의 제약으로 인해 공예를 실기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혔다. 교사A는 공예 실기 수업을 대신하여, 이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예의 종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A가 이론 수업에서 느낀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A : 학생들이 이론 시험을 안보다 보니까, 애들이 이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 이론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서 수업 시간 중간마다 다독이면서 가르쳐주죠. ‘우리가 이제 실기를 해도 이론을 알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요. 이제 그래도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요새는 학생

들이 이론 수업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론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요새 애들이 이론 수업을 안 하려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미술 교과의 경우, 이론 시험을 비중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공예를 비롯한 미술 교과의 이론적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교사A의 답변에서 드러나듯, 공예뿐만 아니라 미술 교과 전반의 이론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교사A는 현재 공예가 앞서 말했던 시수 문제와 같은 교육 현장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기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미술 교과의 시수 문제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예 교육을 이론 수업의 형태로 다룰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공예를 이론 수업을 통해 다루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공예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교사A는 공예를 주로 이론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이론 수업의 내용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였다고 답하였다. 교사A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다락원 교과서이다. 해당 교과서를 사용한 이론 수업에서는 공예에 대해서는 어려운 내용이나 역사보다 공예의 종류나 미술 분야의 한 갈래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룬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A가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경험 속에서 교사A는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교과서의 구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간략한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교사마저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A : 교과서..요즘 교과서들은 너무 단편적이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교과서는 너무 간략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교과서를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교사A는 이러한 교과서의 집필을 담당한 집필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교과서의 구성이 풍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사A는 이러한 단편적인 교과서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서 외의 참고서나 별도의 책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교사A : 교과서를 보면 이제 거기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구성했겠죠. 그런데 우리 때는 참고서가 있었잖아요. 교과서에 따른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론 수업을 하지도 않고 시험도 안 보기 때문에 참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고 공부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요즘 교과서 가지고는 교사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지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교과서는 여러 출판사마다 나뉘져 있고..교과서도 여러 개고.. 이것도 학교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느 학교는 이걸 배우고 어느 학교 나온 학생은 이걸 안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교사A는 교과서의 구성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된 별도의 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밝혔다.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서 세부적인 기법과 공예의 다양한 종류마저도 간략하게만 소개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예를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의 다른 구성이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듯 출판사에 따라 다른 교과서의 구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마다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사A : 일반적으로 (공예 단원에서) 제목 정도로는 그 종류를 다루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공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공예 전공자들이랄지 교

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서가 없고 그러다보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애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평소 교사A는 공예 교육을 이론 수업에서 다루어 온 만큼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교사A는 현재 교과서의 구성이 너무나도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공예를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교육 경력이 30년 이상 된 교사A의 경험에서 교과서는 과거보다 더 축소되어 단순하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교과서의 단순한 구성은 교사에게는 수업 구성에 어려움을 주며,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따라서 현재 교과서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교사에게 추가적인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앞서 교사A가 경험한 공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교사들 상황은 어떠한가? 교사A에게 다른 교사들이 공예 수업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사A : 이제 (공예를)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교사들은 보통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전공 분야니까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교사들의 경우, 공예를 전공한 교사들은 공예 수업을 시도하려고 노력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예 외에도 교사들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전공과 나아가 개개인의 관심 분야가 수업의 주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교사A는 정규 수업 시간 내에 공예 교육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 외 공예 교육이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비교과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질문했다.

교사A: 방과 후 활동 같은 곳에서는 조금 다뤄요. 시간이 거기는 2시간씩이니까 연강(연속으로 시간표를 배치)으로 해서 하나까 다뤄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과후 활동에서는 어떤 공예 수업을 주로 하나요?

교사A: 방과 후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간단히 책꽂이 만들기도 하고 기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고요. 종이, 한지 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작하더라고요.

교사A는 비교과 활동 중 방과후 활동에서는 간단한 공예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교사A에 따르면, 방과후 수업에서는 다양한 공예 중 지공예 교육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다.

방과후 수업 외에도 정규 미술 교과 수업 시간에서 다루어지는 공예의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A는 지공예를 언급하였다.

교사A :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한지공예처럼 이렇게(물체에) 붙여서 하는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지공예랄지 아니면 클레이 같은 거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예상에 따르면, 부채 같은 거.. 부채에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 다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종이를) 붙이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요새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공예는 재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다른 공예에 비해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

요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미술 교과와 예산과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지공예 수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현재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5가지 중 ‘창의 융합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술 교과에서 융합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교사A에게 학교 현장에서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교사A : 융합 교육으로 공예 수업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조건 융합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겠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융합을 해서 수업을 구성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교사A는 융합 교육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융합 수업이 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융합 수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미술 교과 내에서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공예를 융합 교육의 형태로 다루는 것을 선뜻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예 교육은 교사A가 말한 것과 같이 무조건 타 교과와 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교사A의 경험에서 공예 교육은 표현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감상 영역과 같은 이론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상 수업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교과서의 구성마저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는 공예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공예가 교육 현장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미술 교과 시수의 감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교사A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은 예산과 용구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비교과 수업을 활용하여 간단한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이 장에서는 교사A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앞서 교사A의 공예 교육 경험들을 근거로, 교사A가 학교 현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느낀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탐색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노력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 ① 시수, 예산, 장소의 부족

앞서 교사A가 언급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듣고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A: 이제 작품을 제작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고 도구들도 많이 없어요. 도구 그 다음에 예산, 보관 장소 이게 제일 크죠. 시수도 부족하고요. 시수 부족이 엄청 크죠. 이 네 가지가 제일 문제죠.. 도구, 예산, 보관 장소, 시수 부족..

연구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심각하게 작용하나요?

교사A: 그렇죠. 공예 교육을 못하는 주 원인이죠. 학교에서 공예 교육을 못하는 원인이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만 하고 넘어가죠.

교사A는 학교에서의 공예 교육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구, 예산, 보관 장소, 시수의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중 교사A는 다른 문제들보다도 시수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며 시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미술 교육의 시수가 줄어들어 따라 다채로운 수업의 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A는 부족한 시수 문제가 교사와 학생들이 마주하고 함께 미술 활동하는 빈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교사A: 일단은 시수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요. 시수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조금 해보기라도 할텐데.. 1시간 가지고 무슨 공예를 하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공예를 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애들하고 무슨 레포가 형성되겠어요..

교사A가 시수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보아 공예 교육에는 여러 문제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러한 시수 부족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앞서 언급한 예산 및 용구 부족과 보관 장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A : (공예 교육에 필요한 용구가) 없어요. 대학교에나 있지 이런 학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따라주지도 않고요. 미술은 준비실도 있어야 되고 보관실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미술 수업은 교실이 최소한 두 칸은 있어야 하거든요. 최소한. 근데 겨우 한 칸에서 미술 수업을 하려니까 힘들죠. 수채화 수업을 할 때는 이젤을 이렇게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책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젤을 펼칠만한 공간이

안돼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미술 교과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용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용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공예 교육은 예산 부족과 함께 발생하게 된 용구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관 장소의 문제에 대해 교사A는 일반적으로 미술 수업을 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을 드러냈다. 공예와 같이 작품을 일정 기간 교사가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미술 수업의 장소가 협소한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보관 장소가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 작품의 보관 장소 부족의 문제는 결국 교사가 공예 수업을 기피하게 되고 별도의 보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수업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사A가 언급한 문제 이외에도 다른 물리적 문제나 공예 수업의 난이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았으나 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공예 교육 활성화는 공예 자체의 난이도나 이외의 다른 문제들보다도 시수, 예산, 도구, 보관 장소의 부족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교사A :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런 도구나 예산, 보관 장소, 시수가 부족해서 (공예 수업을) 하고자 하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들이 자꾸 만들어보고 하는 노작 활동으로서 굉장히 여러 장점이 많은데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교사A의 학창 시절에도) 거의 해본 적 없고요.

## ② 학생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이어서 공예 수업을 진행할 시에 교사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A는 공예 수업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A: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니까 수업의 재료 선택 같은 것을 신중히 해야 하는데, 그 학년과 나이에 맞게 해야 돼요. 조각도나 칼이나 이런 용구의 사용을 학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요. 선생님이 그거를 판단해서 해야 돼요. 이 학생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 수업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손에 목장갑이나 이런 것을 (보호 장비) 착용해서 덜 다칠 수 있게, 위험하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학생들끼리) 장난을 잘못하면 옆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 용구를 좀 고려해서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것은 교사가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공예를 포함한 모든 미술 분야는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 용구를 달리한다. 이 중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용구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공예 수업의 경우 위험한 용구들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교사A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고려해서 용구를 선정하고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실기 연수의 부족

앞서 교사A는 교사의 전공과 관심사가 수업 주제의 선정과 관련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교사의 인식과 수업 내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와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사A : 근데 그 전공을 안 한 사람들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죠. 자기 전공이 아니면 좀 기피하게 돼요. 이제 교사들은 모든 미술 분야를 다 배우잖아요. 근데 6개월이나 한 학기 가지고는 힘들어요. 적어도 1년 썩은 해야 하는데, 보통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A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자신이 전공한 미술 분야를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예 교육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교사의 선호도, 즉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저하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교사A는 다양한 미술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방안으로 교원 연수를 언급하였다. 이에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생각한 이유와 어떠한 연수가 필요하다 느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A : 이런 수업을 할 때 우리가(교사가) 직접 느끼고 경험을 해봐야지, 애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설명도 잘할 수 있고 위험한 것도 예상을 해서 애들이 주의해서 (공예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죠. 내가(교사가) 그거에(미술 표현과 방법)에 대해 마스터가 안 되어 있는데 수업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교사들에게 실기 연수가 필요해요. 그게(실기 연수) 딱 한 번이라도 하고 오면 자기 머릿속에 깊게 남잖아요. 그래야 애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요.

교사A는 실기 연수를 통해 다양한 미술 교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에서 여러 미술 교과를 폭 넓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교원 연수를 통해 직접 실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교사들이 학생 입장에서 어려움과 안전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A는 이러한 점에서 폭넓은 실기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교사A의 경험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앞서 말한 시수, 예산 등과 같은 수업의 환경적 요소들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과 교원 연수를 제외하고 교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러나 교사A는 교사의 노력보다는 시수, 예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원 연수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환경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사A의 경험에서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시수, 예산, 도구, 보관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을 파악하였다. 교사가 이러한 제약들 속에서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수, 예산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공예 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한다.

〈표 7〉 연구 참여자 1 : 교사A의 연구 결과 정리

〈연구 참여자 1 : 교사A〉		
1) 공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밀접한 관련성</li> <li>- 진로 교육으로서의 가치 : 경제, 산업 교육 가능</li> <li>- 시각과 촉각 교육 가능 : 전인 교육으로서의 가치</li> </ul>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수업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 수업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li> <li>- 이론 수업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li> <li>- 이론 수업은 학습 동기를 자극하기 어려움</li> </ul>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다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면의 한계로 인한 단편적 구성 문제</li> <li>- 별도의 참고 자료 필요</li> <li>- 출판사마다 다른 내용</li> </ul>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별 전공에 따라 수업 주제가 달라지는 경향</li> <li>- 지공예와 같은 간단한 공예 수업</li> </ul>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 교육의 무조건적 긍정에 대한 위험성 제기</li> <li>- 현재 공예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적인 문제</li> </ul>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① 시수, 예산, 장소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시수로 인해 학생과의 관계 형성 저하</li> <li>-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미술 수업</li> </ul>

		은 진행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부족이 용구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향</li> <li>- 재료가 없어서 공예 수업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소한 장소로 인해 작품 보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미술 분야 선호</li> </ul>
	② 학생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사항 발생</li> <li>- 용구 선택과 같은 여러 고려사항 요구됨</li> </ul>
	③ 실기 연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미술 분야 기피 현상</li> <li>- 실기 연수 확대 필요</li> </ul>

## 2. 연구 참여자 2 : 교사 B

교사B는 대학교 재학 기간에 회화를 전공하여 동양화와 서양화를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현재 교사B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약 2년간 재직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그가 재직 중인 학교 내에는 자신을 제외한 미술 교사 1명이 더 있지만, 해당 교사와 교사B는 담당 학년이 다르기에 수업 내용은 각자 구성하고 있다. 교사B는 고등학교 2학년 미술과 3학년의 선택 교과인 미술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 1) 공예에 대한 인식

공예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교사B는 임용고시를 통해 공예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B가 목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공예를 고루 경험해보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B는 동료교사들과 공방 체험을 다니고는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사B가 공예에 큰 관심과 흥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어서, 교사B의 공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교사B는 공예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주제로 다루어보고 싶은 공예로는 스테인드글라스<sup>1)</sup>를 답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들은 교사B가 전통공예 작품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교사B에게 공예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교사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은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이다. 교사B는 자신이 학생이던 시절 보통 미술 교과는 회화나 판화 위주의 수업으로 치중돼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신이 학생이던 시절 경험을 통해 교사B는 한정된 미술 분야로 치중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미술 분야를 고루 접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교사B : 미술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받은 것만 돌이켜봐도 회화 위주로 좀 치중돼 있거나 아니면 판화 이런 수업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예는 분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리도 있고..가죽도 있고..나무도 있고..재료적인 측면에서 더 범위가 넓은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1) 글라스재료에 안료를 넣어 만든 색유리나 길면에 색을 칠한 유리를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 또는 회화적 도안으로 자른 후, 납으로 된 리본으로 용접하여 만든 창유리. 12세기 이후의 교회 건축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월간미술, 2017).

둘째, 공예는 물성 체험과 융합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교사B는 물성 체험을 통한 촉각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전통 공예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와 역사 교과가 연계성을 띄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공예가 통합 교육으로서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B : 물성체험,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장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영상같은 것을 보는 거나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역사 수업과 미술사 수업이랑 접목시켜서 실제 이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예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공예 교육은 미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공예의 실용적, 심미적 가치가 미술의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사B는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공예 교육을 통해 기존에 미술의 가치가 아름다움에 있다는 관점에서 나아가 미술이 실용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교사B : 미술이 난해하다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예는 충분히 실용적이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어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추구하는 미술 교육의 방향성과 공예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교사B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미술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교사B는 감상교육을 통한 심미안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사B는 기존에 학생들이 평가에만 치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미술 교과의 작품 활동과 감상을 통해 미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서 교육의 일환으로 미술 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공예 수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B는 과거 학생이던 시절의 교육 경험에서 공예를 다뤄본 기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공예의 비중이 낮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교사B는 공예에 대해 관심이 깊으며 공예 교육이 미술의 다양성을 알리고 물성체험과 융합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을 중요시 생각하였다. 또한 공예의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성격은 미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이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예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비해, 공교육 기간 내 공예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교사B의 사례는 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예 교육은 어떨까? 다음 장에서는 현재 교사B가 경험한 교육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이 장에서는 교사B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B는 자신이 진행한 공예 수업에 대해서, 나전칠기, 레진 등 다양한 공예 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밝혔다. 그 중 교사B는 나전칠기 공예 수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해당 수업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미술사 수업에서 나전칠기를 주제로 총 4차시 수업 중 마지막 차시에 1시간 동안 다루어졌다. 공예 수업임에도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은 교사B가 나전칠기 제작 교육용 키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교사B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던 모습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예 수업이 다른 미술 수업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느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관해 교사B는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공예와 같은 제작 활동을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그리기를 선호하는 학생과 제작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 등 학생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교사B : 다른 미술 분야를 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더 좋았던 이유가 (그림) 그리는 거를 두려워하는 애들도 (공예 수업에서) 잘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확실히 참여도가 달라요.

이러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교사B는 학생들에게 시수 문제와 학년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효과적인 공예 수업을 막는 요인으로 시수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서 살펴볼 것이다.

교사B : 이제 디자인 과정에서 보다 결과물이 부족하게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아이디어 스케치할 시간을 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이걸 시수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 미술사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제작 시간을 딱 한 시간밖에 못주고요.

교사B는 이러한 시수 문제와 같은 제약이 있지만, 공예 수업에 대한 높은 학생 만족도와 흥미는 공예 수업의 장점 및 편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예 교육의 높은 학생 만족도가 교사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사B : 편한 부분은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다는 것 같아요. 흥미는 애들이 무조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학생) 스스로 잘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재료를 집에서 직접 가져오는 친구가 있다거나 또 본인이 잘 만드는 친구는 다른 친구를 티칭하기도 해요. 서로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밥알 만들 때는 이렇게 해.” 하면서 서로 전수해주는 게 너무 귀엽고 보기 좋았어요. 반찬 도시락 통을 각각 만들었는데, 반찬을 서로 나눠 가지고 이런 것처럼 서로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교사B의 경험을 통해 학생 흥미는 결국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의 몰입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표현활동을 돕고 나아가 함께 작품을 교류하는 경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예 교육이 학생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우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내포한다.

교사B는 레진 공예, 나전칠기 공예 등 다양한 공예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이와 같은 교사B의 공예 수업 사례를 통해 공예에 대한 높은 학생 만족도가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능동적인 학생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마침내 학생들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현재 교사B는 미진사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교사B에게 공예 실기 수업에서 수업 구성 및 지도 시에 교과서를 참고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과서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교사B는 실제 학교 현장의 교실 환경이나 재료가 교과서와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학교마다 시설 및 구비되어 있는 재료가 다르기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학교 수업 내용 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사B : 거기에 나와 있는 수업들이 재로나 환경이 안 갖춰져 있으면 사실 못하는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떨어져 있는... 근데 또 쓸 수 있는 건 참고하기도 해요.

이어서 교과서 내 단원 구성과 교과서 집필진의 공예 전문성에 대한 교사B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교사B는 미진사 교과서가 고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로 공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예의 전 분야를 담으려 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교과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사B는 수업 난이도와 수업 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일부 참고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교사B는 나전칠기 수업 및 미니어처 수업에서 교과서를 거의 참고하지 않고 수업을 구성했음을 밝혔다. 때문에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교사B는 교과서 내에서는 유래, 구체적인 기법 등의 자세한 내용보다 공예의 종류와 같은 간단한 소개 정도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단편적인 구성 때문에 교사B는 교과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B : 유래나 역사, 되게 구체적인 기법이나 과정까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여서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타발법, 무슨 기법 이런 식으로 그냥 기법이 있다고 3가지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교사들은) 되게 다양하게 배우고 제작과정도 배우는데.. 그래서 애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교과서 내 공예는 넓은 범위의 공예를 간단하게만 다루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구성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수업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폭 넓은 미술 분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교수 학습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현재 교사B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교사B 외에도 한 명의 미술 교사가 더 있다. 교사B의 동료 교사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이에 동료 교사들의 공예 수업과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 공예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사B : 다른 선생님은 거의 야외에 나가서 회화 수업을 하세요. 아크릴화, 풍경화 그리는거. 그리기 수업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방과 후 같은 비교과 활동은 방과 후 수업이 없어서요.. 방과 후 수업은 고등학교라서 학생들이 모두 입시 학원을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동료 교사는 공예 수업은 하지 않고 대부분 회화 수업을 주로 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동료 교사가 서양화를 전공하였다는 점에서 회화 수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고등학교라는 학교 특성 상 방과 후 활동, 비교과 활동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입시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비교과 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공예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공예에 대한 경험이 미비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B의 교육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학교 현장에서 다뤄지는 공예 수업에서 공예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 다른 교사들이 다루는 공예 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B : 공예의 전 영역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 위주의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유리나 가죽은 못 다루니까.. 가마 이런 거(구비하기 어려운 용구나 시설) 없으면 못하는 것들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교사B에 따르면, 현재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공예 교육은 시설,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 만들기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예산 및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용구나 시설을 학교 내에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예 교육이 넓은 범위의 공예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 현실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예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이후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현재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 융합 역량’은 미술 교과에서 융합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교사B는 미술사 및 역사 교과와 공예를 융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이 융합 교육으로서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B에게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B : 화학적인 변화 과정 같은 것 있잖아요. 금속이 부식된다거나 이런 것을 예술 작품에서 찾아보는 것. 아니면 가마에서 구워서 소성하는 것도 산화 소성, 환원소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과학, 화학 교과에서 배우는 것과 융합해서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사B는 앞서 언급한 역사, 미술사 교과 이외에도 화학 교과와 공예의 융합 수업에 제시하였다. 이는 여러 타 교과와의 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예 교육이 가지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예의 융합 교육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B에게 공예와 타 분야를 융합한 교육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교사B는 과학과 미술 교과의 융합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과학과 미술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하였다. 교사B의 융합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 또한 과학을 이론이 아닌 실험과 만들기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B : 아까 말한 대로 화학 교과, 과학 교과랑 융합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시약을 리트머스지에 떨어뜨려 염색을 해요. 약마다 화학 반응 때문에 색이 달라졌는데, 이것 이용해서 종이 장미꽃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거기는 이론만 배우는게 아니라, 만드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실험이니까.

이러한 융합 교육에 대한 경험에 근거하여, 교사B는 공예가 동교과인 미술의 다른 분야보다 타 과목과의 융합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이는 공예가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원리나 작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교사B : (공예 분야가) 융합이 비교적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회화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화는 좀 한정적이에요. 시화 그리기 같은 것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예가 훨씬 더.. 왜냐하면, 공예는 실용적 예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쓰인다. 뭐 옷은 어떤 방수랑 무슨 기능이 있어서 쓰인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직접 배울 수 있고 (공예를) 과학 교과랑 융

합할 때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사B는 융합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예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교사B는 공예 수업을 지도할 때 시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으며, 다른 동료 교사 및 교사B의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에서도 공예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교사B가 생각하는 공예 교육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이 장에서는 교사B의 경험을 토대로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앞서 교사B가 언급한 시수 부족의 문제 이외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이 장은 동료 교사 및 다른 교사들이 공예 교육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지 파악한 것이다.

#### ① 예산의 부족

교사B는 공예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호소했다. 교사B는 부족한 예산이 열악한 수업 환경 문제와 부족한 재료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교사B에 따르면 결국 예산 문제가 공예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간략화시키거나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교사B : 예산이나 환경이, 재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슬픈 단점이나 한계, 어려움이죠.

연구자 : 학교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업이 가능한가요?

교사B : 저희는 미술 교사가 2명이라서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레진) 미니어처 수업만 할 수 있었죠. 나머지는 회화나 색연필로 그리기 이런 걸로만 하고요.

연구자 : 이러한 예산, 환경 문제가 다른 학교나 교사들에게도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교사B : 인원만큼의 재료 구매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200명을 50만원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진짜..(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 재료가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 그리고 나전칠기 수업도 원래 3학년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과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결국 3학년만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쉽죠.

이와 같은 예산 문제에 대해, 교사B는 원활한 공예 수업을 위해 넉넉한 예산이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반대로 현재 학교의 부족한 예산이 공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교사B :환경적인 면에서는 학교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가마나 이런 장비들을 사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자 공예도 전에 다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지점토로만 만들고 끝났더라고요. 안곱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교사B는 예산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공예 수업을 할 수 있기에, 넉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예 수업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타 교사의 도자수업 사례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B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학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였음을 밝혔다. 교육청 지원사업이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교사B에게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

용한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B : 교육청 지원사업의 규모마다 다른데, 이번에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공간 개선을 주제로 해서 벽화 그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타서 남은 금액은 저희 내년 수업 재료 같은 거 미리 사두고 그랬어요.

이러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B는 지원사업은 꽤 많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러한 사업을 찾아보는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느꼈다. 이는 교육청 지원사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관심에 따라 현재 교육 현장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교사B에게 공예 교육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확인했으나, 가장 심각한 것은 예산, 재료 부족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B가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를 다수 언급하는 것은 예산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교사B는 교사 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 교사 1인당 많은 학생 수로 인해 겪는 어려움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앞서 교사B는 자신의 학창 시절에 공예를 배운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교육 현장에 재직할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교사B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교사B는 공예 수업이 타 미술 분야에 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으로 예측하였다. 공예 수업은 재료와 용구 사용에 있어서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예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 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려사항

들로 인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교사B : 수업을 할 때, 애들 인원이 많으니까 어려워서. 애들을 봐주러 다니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재료를 다룬 적도 없으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가 더 크죠. 애들이 신선해하지만 그만큼 어려워하는 거죠.

오늘날 학교 공예 수업의 경우, 낯선 미술 분야라는 점에서 수업 초반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넉넉한 수업시간이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간이 촉박하기에, 많은 학생들을 교사 혼자 담당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교사B는 공예 수업 구성 시에 학생 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생의 연령,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B : 수용 가능한 인원인지, 학생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일단 저는 여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공예 수업을 지도할 수 있었지, 중학교나 초등학교였으면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다면 지도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미술사 수업은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만 듣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교사B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공예 수업에서 학생 규모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사B는 이러한 많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교사나 공예 수업 관련하여 도움을 줄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 교사 수 대비 많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B : 안전 문제 이런 것도 보조교사나 관련 도움을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진행하기에는 좀.. 공방 같은 데를 가도 소규모 클래스로 10인 이상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 보통 학급에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나요?

교사B :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학급에 21명에서 25명 사이 정도예요. 한 번에 (공예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인원인긴 해요.

공예 수업에서는 여러 용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을 지도하는 것은 자칫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B는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로, 안전 문제 이외에도 정리정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수의 인원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어서 정리정돈의 문제를 낳고,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재료의 낭비가 예산 부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B : 문제는 애들이 재료를 너무 더럽게 사용해서요. 예를 들어 붓을 발지 않아서 레진이 묻은 채로 그냥 굳어버린다던지.. 이렇게 소모돼서 버리는 재료가 많아서 재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리정돈도 더 엄격하게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공예 수업을 하고나서 들었습니다.

교사B의 답변을 통해, 공예 교육은 많은 학생 수를 대상으로 다루어지기에 정리정돈, 안전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교사B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예를 낯설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학생들이 공예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생 수는 교사가 학생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공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보조해줄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실기 연수의 부족

교사B는 공예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 개인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미술 교과의 경우 교육 내용의 선택과 수업의 구성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큰 과목이기에, 교사 스스로의 관심이 많은 분야나 관련 지식이 많은 분야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B : 우선 교사 스스로가 공예 분야들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제일 커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미술 수업은 (교사의) 자율성이 좀 큰 과목 같아서.. 특히 (교사들이) 자기가 잘하거나 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업만 생각하곤 하는데, 그래도 사실 다양한 과목, 재료, 분야를 아우를 수 있게 시도해보려면 결국 교사의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B의 답변대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교사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교사B는 평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 스스로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소 교사B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여러 공방을 다니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활동이 공예 수업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B : 저는 2학년 담임선생님들 다 같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해요. 담임 선생님들끼리 함께 심미안 육성을 위해서요. 저는 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전문학습공동체로 들었거든요. 도자공방을 가서 만들어 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도자공예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구나.’, ‘직접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동료 교사들한테도 인식을 공유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교사B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효과적인 공예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와 수업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사B : 연수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재료를 처음 다루니까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연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미니어치 수업을 생각해보니까, 신입교사 연수 때 다른 미술과 교사 분께서 수업을 했는데 좋았다고 알려주셔서 했거든요. 뭔가 교사들 간에 수업 공유, 나눔 문화를 통해서 이런 수업 주제가 있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봐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 나눔, 공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수업 나눔 문화가 잘 되어 있나요?

교사B :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교사 노력으로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걸로 수업 나눔 하는 모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은 들어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맡으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관심을 쏟을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원 연수에 대해 교사B는 실기 연수의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보았다. 미술 교과는 공예 외에도 여러 미술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이 존재한다. 미술 교사는 미술의 전 범위를 고루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B는 재료 및 용구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실기 연수와 공예 수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나눔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다만 현재 수업 나눔 문화는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찾아서 해당 모임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는 업무량이 많은 교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교사B는 시수, 예산, 도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을 공예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수, 예산과 같은 교육 현장의 문제는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교사B는 근본적으로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교원 실기 연수와 수업 나눔 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사B의 답변에 따라서, 교사B는 교사의 인식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연구 참여자 2 : 교사B의 연구 결과 정리

〈연구 참여자2 : 교사B〉		
1) 공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경험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함</li> <li>- 물성 교육을 통해 촉각 교육 가능</li> <li>- 역사 교과와의 연관성 : 융합 교육으로서의 가치</li> <li>- 미술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li> </ul>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수업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li> <li>- 제작 활동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li> <li>- 학생 간의 교류 활발 : 인성 교육적 가치</li> </ul>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미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난이도와 수업 내용 조절에 용이</li> <li>- 실제 학교 현장과의 괴리감 문제</li> <li>- 단편적 구성 문제</li> </ul>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재료로 간단한 공예 수업 진행하는 경향</li> <li>- 고등학교는 입시로 인해 비교과 활동 진행하지 않음</li> </ul>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과학 교과와의 융합 가능성</li> <li>- 실생활과의 밀접성으로 인해 융합에 적합</li> </ul>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① 예산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만큼 재료 구비가 어려움</li> <li>- 교육청 지원사업 활용 :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함</li> </ul>
	③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시간 부족</li> <li>- 개별적 피드백 불가능</li> <li>- 정리정돈 어려움으로 재료 낭비 :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향</li> </ul>

	④ 실기 연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인식 개선 필요</li> <li style="padding-left: 20px;">: 전문적 학습공동체</li> <li>- 연수의 부족 및 수업 나눔 문화 비활성화 문제</li> </ul>
--	-------------	--

### 3. 연구 참여자 3 : 교사 C

교사C는 대학교 재학 기간에 도자 공예를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시간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개인적인 작품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2개월가량 중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교사C는 현재 중학교 1학년 미술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의 2,3학년 미술교과는 교사C를 제외한 미술 교사 1명이 지도한다. 교사C가 근무 중인 학교는 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학생 수가 학급 별 30명 이상으로 10개 이상의 학급이 존재한다. 이는 대규모 학교에 속하는 것으로, 많은 학생 수와 공예 교육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예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대학교 재학 시절 도자 공예를 전공한 교사C가 교사로 재직 중인 현재에도 공예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은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로서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현재 교사C는 현재 시간적 여유나 작업 공간의 부재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예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도예 외에도 목공예를 배워보고 싶다고 답하며, 공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추후 수업에서 교내에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한 지공예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언급하

며, 공예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교사C에게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C는 총 네 가지 측면에서의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공예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성격을 통해 심미안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예의 실용적 성격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사C는 이러한 공예품 제작부터 사용까지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심미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C는 자신이 공예를 전공하였을 당시, 결과물로서 공예품이 아닌 공예의 제작과정을 알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예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야를 길렀던 경험을 밝혔다. 교사C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공예의 제작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미를 탐구하는 안목을 육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C : 공예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지면서 사용하는 실용성과 기능성이 공예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면서 결과물을 또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서 느끼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공예의 결과물만 봐오다가 직접 만드는 걸 해보니까 ‘과정이 힘들구나.’ 이런 과정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학생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공예품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공예 교육은 물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교사C는 다른 미술 분야와 달리 공예는 다양한 재료를 직접 만지면서 제작하는 점이 물성 교육을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예의 물성 교육적 가치를 통해 학생들이 촉각과 같은 지각능력을 기르고 재료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C : 재료가 가지는 물성 측면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미술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평소에 혼자서 느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셋째, 공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로 학생들의 진로를 확장시켜줄 수 있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공예는 다른 미술보다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C는 이러한 점에서 공예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사례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사C : 진로 측면에서도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걸 만드는 직업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직업세계도 더 넓어 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예 교육은 환경 교육에 적합하기에 교육적 필요성을 갖는다. 교사C는 공예가 실용성과 심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공예를 다루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예가 미적 가치를 지닌 일상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품을 재사용하여 아름다운 실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을 다루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C : 공예는 실용적이고 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환경 교육에 적합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사C는 공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과 함께 공예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서 공예 교육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교사C는 공예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사C는 공예의 실용적, 심미적 성격이 교육적 가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공예의 실용적 성격에 대해 교사C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까지 기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

##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이 장에서는 교사C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예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사C가 공예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사C의 수업 사례가 아닌 교사C의 경험에 근거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를 고려하여, 공예를 전공한 경력과 타 교사의 수업 및 비교과 공예 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C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교사C는 대학 시절 도예를 전공한 미술교사이다. 때문에 공예를 전공한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공예는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교사C에게 전공자로서 생각하는 공예와 교사로서 생각하는 공예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C는 전공자로서 경험한 공예는 심미성에 초점을 둔 작품 활동의 성격이 강한 반면, 교사로서 접한 공예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 실용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가깝다고 느꼈다. 교사C는 이러한 실용성에 초점을 둔 공예 교육이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학생들이 높은 흥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C가 교사로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공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중점으로 두고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C : 교사로서의 공예는 아무래도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더 흥미 있고 실용적인 것들은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너무 흥미나 실용성 위주로 맞춰지다보면, 작품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재밌는 공예활동이라는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요?

이어서 교사C가 경험한 공예 교육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교사C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공예 수업을 참관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를 이야기하였다. 교사C는 학생들이 평소에 회화 수업을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공예 수업을 낯설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예를 새로운 미술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공예에 흥미를 느끼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교사C : 평소에 보통 미술 수업이 종이에 그리는 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실용품들을 만드는 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는 것 보다 만드는 걸 확실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예 수업은 학생들이 일단 흥미를 갖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 같아요.

교사C는 공예 수업에서 학생들이 흥미가 높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교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교사C는 이전에 회화 수업과 전시기획안 제작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과서를 활용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공예 수업을 하게 된다면 교과서를 참고하여 지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는 공예를 종류별로 고루 담았기 때문에 지도할 때 큰 장점이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교사C는 현대 공예 작품과 종류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사C가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는 지학사의 미술 교과서이며, 해당 교과서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가 분류되어 있다. 교사C는 해당 교과서의 공예 단원에 대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대공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교사C : 전통공예랑 현대공예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서 나와 있는데, 공예가 종류별로 있기는 해요. 비중은 좀 동등한 것 같긴 한데, 현대공예 종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다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류별로 잘 나와 있다는 점은 수업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사C는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과 집필진의 공예 전문성에 대해서는 공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였다. 다만 공예 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현대공예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점을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교사C는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공예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학생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예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여러 공예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일 것 같다고 보았다. 반대로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공예 단원의 내용에 추가돼야할 점들이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며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교사C : 일단 학생들은 공예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알 수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공예)전공자가 아닌 교사들은 (내용이) 좀 더 고르게, 균형있게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공예)전공자, 전공한 교사들이 보면 공예 단원에서 비중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잘 보이긴 하니까. 내용 보완하면서 (교과서를) 활용할 것 같아요.

교사C는 자신이 사용하는 지학사 교과서 내 공예 단원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학사 교과서는 전통공예에 비해 다양해진 현대공예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현대공예는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범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공예 작가들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나무, 섬유 등에서 나아가 폴리우레탄 섬유, 실리콘 등 다양한 신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재료 측면에서 다양해진 모든 현대공예의 전반을 교과서에 담기란 어려운 것이다. 다만 보다 다양해진 현대공예의 양상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현대공예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현재 교사C가 근무 중인 중학교에는 교사C 외에도 한 명의 미술 교사가 더 있다. 교사C의 동료 교사는 대학 시절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이에 교사C에게 동료 교사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공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질문하였다. 교사C는 공예 수업이 정규 미술 수업시간 내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함께 재직 중인 교사도 공예 교육을 다루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만 현재 교사C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가 ‘예술로 행복한 사회성 회복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드러냈다. 공예 교육은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C : 사회성 향상 교육으로 도자기 빚기, 목공예품 만들기 이런 수업은 많이 해요. 이런 경우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더라고요. 보통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진행해요.

해당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수업은 아니며, 교사C의 학교 내에서 사회성 향상 수업의 일환으로 교과 시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도자 공예, 목공예 등의 공예 수업이 이루어진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공예 수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듣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했다.

교사C : 다음 주에 진행하는 도예 수업은 총 3시수 동안 진행되는데, 직접 도자기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성된 초벌 기물에 도자기 안료로 채색하는 활동을 해요. ‘도예를 통한 진로탐구와 나의 꿈 표현하기’를 주제로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은 미술 교과 외 시간을 활용하여, 총 3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 수업을 한다. 이 때 진행되는 공예 수업은 초벌된 기물에 안료로 채색하는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과정을 축소시킨 것이다.

교사C는 이외에도 방과 후 활동과 자유학기 수업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공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방과 후 활동과

자유학기 수업은 앞서 언급한 비교과 프로그램보다 적은 시수로 운영된다. 따라서 방과 후 활동이나 자유학기 수업에서는 나무 반지 만들기 수업과 같이 간단한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교사C의 학교에서는 비교과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공예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C는 이러한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마저도 학생 수가 소수인 경우에만 공예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교사C : 방과 후나 자유학기 수업으로 공예 수업, 나무반지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소수의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용 키트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수업하더라고요.

교사C의 학교에서의 공예 교육은 정규 미술 교과 시간보다 비교과 활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규 수업 시간은 1시수인 것에 반해 비교과 활동은 3시수의 블록타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예 교육에 더 적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교사C는 이러한 공예 교육이 공예의 전 영역을 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목공예, 도자 공예, 지공예로 치중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공예 수업에서 제작하는 공예품은 장신구와 같이 작은 크기로 제한되거나 간단한 기법을 사용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사C의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공예 교육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루고 있다. 비교과 수업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현재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융합 교육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융합 교육으로 공예 수업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사C의 생각을 질문했다. 교사C는 융합 교육을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공예 교육이 통합 교과로서 교육적 가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사C는 공예 교육을 통합 교과로 다루게 된다면, 넓은 분야에서 공예를 바라볼 수 있으며 공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예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교사C : 공예의 다양성이 잘 드러날 것 같아요. 통합 교과로 다루게 되면 좀 더 넓은 분야의 공예를 다룰 수 있어서 공예의 영역이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예의 한계가 깨질 것 같아요.

공예를 통한 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공예의 제작과정, 착색 등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으며, 공예를 보는 시야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과학과 같은 융합 교과를 활용하여 물리, 화학적 원리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표현 방법을 소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과의 융합은 공예가 정해진 제작과정을 따라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융합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과가 공예와 융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질문했다. 교사C는 국어, 음악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교사C는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을 다루게 된다면 공예에 대한 시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학생들에게는 미술 외의 국어, 음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표현에 대해 교수하여, 학생들의 표현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C : 국어교과요. 아니면 음악 교과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교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C의 경험에서 공예는 융합 교육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미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정규 미술 교과 시간보다는 비교과 활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교과 활동에서마저도 전체 학생이 아닌 소수의 학생들만이 공예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규 수업 시간 내에 공예가 다루어지지 못하고 소수 학생들만이 축소된 공예 교육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이 장에서는 교사C의 경험을 통해 공예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앞서 교사C가 언급한 공예 교육의 실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 탐색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① 시수의 부족

교사C는 앞서 공예 수업을 시도해 보지 못한 이유로 시수 문제와 협소한 장소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교사C가 언급한 시수 부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교사C : 무엇보다 미술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 공예는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술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예는 하게 되면 준비할 것도 많고 활동 후에 정리하는 시간도 길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 확보가 안 되니까 할 엄두가 안 나서 실행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미술 교과는 1시수로 학급 당 일주일에 1시간의 미술 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교사C에 따르면, 공예 수업의 경우 준비해야 할 재료가 많으며, 이에 따라 재료와 용구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이외에도 다른 미술 분야에 비해 공예는 정리정돈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정규 미술 교과의 시수인 1시간으로는 공예 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공예 교육에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교사C는 공예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최소한 2시간이 블록타임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사C : 최소한 블록타임으로 이제 연달아, 2시수로. 2시간 연달아 하게 된다면 공예 수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공예 교육은 다양한 재료와 용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요구된다. 교사C는 특히 공예는 수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작품을 구상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미술 교과의 1시수는 턱없이 모자라며, 시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공예 교육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앞서 교사C는 공예 교육이 정규 미술 수업 시간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으로 교사C는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학생 수가 공예 교육에 주는 어려움에 대해 교사C는 총 세 가지의 문제를 말하였다. 첫째, 공예 수업에 필요한 용구 및 학생 작품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서 교사C는 공예 수업을 시도해 보지 못한 이유로 시수와 협소한 장소를 언급하였다. 공예 교육은 많은 학생 수에 따른 여러 재료와 많은 수의 용구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예 교육에서는 학생 수와 작품의 수가 비례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보관해 둘 별도의 장소가 요구된다. 현재 미술 교과가 1시간이며, 공예 수업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수업에서 작품 제작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작 중이던 작품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C : 학교에 미술실 환경이 조금 협소한 편이라 학생들이 많으면, 작품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둘째, 많은 학생 수로 인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기가 어렵다. 공예의 경우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세밀한 관찰을 통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사C : 그리고 피드백이 어려울 것 같은 게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피드백 하다보면, 수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 수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예는 다양한 용구와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칫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 경우, 학생들이 용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와 같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가 어렵다.

교사C : 재료와 용구 사용법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구요. 안전도 이제 교사가 한 명인데 학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몰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C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교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공예 교육 시에 교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사C :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미리 살펴본 후에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이나 예방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도 ‘이게 이런 부분이 위험하겠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어서 교사C에게 이러한 학생 수가 많다는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했다. 교사C는 교육용 키트를 제안하였다. 이는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교육용 키트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을 보다 편리하게 지도할 수 있고 제작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C는 추가적인 보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는 앞서 교사C가 언급한 시수, 장소, 학생 수 등의 여러 고려사항들로 인해, 정규 교과 시간 내에 많은 학생에게 공예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C의 학교 사례와 같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공예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와 진행되는 프로그램마다 상이하지만, 몇몇 비교과 활동은 지정된 인원내 제한을 두거나 일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공예 수업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 주로 다루는 것이다. 또한 비교과 활동의 경우 별도의 예산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서 교사C가 언급한 공예 프로그램의 사례와 같이 공방에서 공예가와 추가 지원 인력을 초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학교에서는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서 보다 비교과 활동에서 공예 교육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

### ③ 실기 연수의 부족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C는 연수를 통해 교사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등 스스로의 전문성을 기르는 방안을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직접 여러 공예 작품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공예에 대해 전달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공예 실기 관련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C : 연수를 많이 들어서 직접 교사 본인이 만들어 봐야 해요. 공예 연수인데, 직접 제작하는 연수 이런 게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연수를 여러 개 해보면 학생들한테 좀 더 알려주기 쉬우니까, 직접 먼저 체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예 실기 연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공예 관련 실기 연수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개설된 연수의 수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공예 관련 실기 연수는 다양한 분야의 공예 종류로 구

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예 관련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C는 학기 중에는 교사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연수를 듣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과 수업 구성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사가 자신의 교과 별 전문성을 기를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C : 조금 있긴 하지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연수 할 수 있는 시간도 학기 중에는 교사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에 많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교사의 많은 업무량은 연수와 같은 교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공예 실기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미술 교사의 공예 전문성을 기를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물론 연수 프로그램에서 모든 분야의 공예 실기 연수를 개설하거나 미술 교사가 모든 종류의 공예를 다루어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공예 분야의 사례로, 교사C는 석공예나 금속공예와 같은 공예를 예시로 들었다. 교사C는 금속공예나 석공예와 같은 공예는 많은 재료와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술 교육에서 공예의 전 영역을 표현 영역을 통해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교사C는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예의 경우에도 높은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들이 제작과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한 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예 교육을 시행한다면 어려운 공예 분야도 수업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시수와 공간의 부족, 많은 학생 수와 안전 문제, 다양한 연수와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같은 여러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공예 교육이 회화나 디자인과 같이 다른 미술 분야보다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교사C는 공예를 이론 교육으로 다루거나 관련 영상을 통한 간접체험으로나마 학생들에게 공예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공예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교사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인 공예 교육에 제약을 주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연구 참여자 3 : 교사C의 연구 결과 정리

〈연구 참여자 3 : 교사C〉		
1) 공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생활과의 밀접성을 통해 학생들의 미적 안목 육성 가능</li> <li>- 물성 교육을 통해 지각 능력 향상</li> <li>- 진로 교육으로서 직업 세계의 확장</li> <li>- 환경 교육으로서 공예의 실용성을 통해 더 많은 의미 전달 가능</li> </ul>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수업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설게 느끼는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미술 분야로 인식하여 흥미 높음</li> <li>- 그리기보다 제작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li> </ul>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의 종류 폭넓게 다룸</li> <li>- 현대 공예 작품과 종류 부족</li> </ul>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미술 교과 수업에서는 공예 교육 불가능</li> <li>- 제작 과정을 축소시켜 진행</li> <li>- 학생 수가 소수인 경우에만 선호</li> <li>- 목, 도자, 지공예로 치중</li> </ul>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국어, 음악 교과와의 융합 가능성</li> </ul>
3) 교사가 느낀	① 시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와 용구에 대한 설명 시간,</li> </ul>

공예 교육의 어려움		작품 구상을 위한 시간 요구에 따른 시수 부족 - 최소 2시간 블록타임제 형태로 구성 필요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 작품 보관 장소 부족 - 개별적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경향 - 수업 시 추가 보조 인력 필요
	③ 실기 연수의 부족	- 연수의 종류와 수 부족 -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학기 중에 연수를 듣기 어려운 환경

#### 4. 연구 참여자 4 : 교사 D

교사D는 대학교에서 목칠 및 섬유 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추가로 미술 이외에도 디자인공예 교직이수를 받아 디자인과 공예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사D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과 값비싼 재료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개인적으로 공예 작업은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현재는 일러스트나 회화 작업을 통해 교과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있다. 교사D는 중등 교육 현장에서 6년째 재직 중이며, 현재는 중학교에서 2,3학년의 미술 교과를 가르친다. 학교 내 미술 교과를 담당 중인 교사는 교사D외에도 2명이 있으며, 이는 교사D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1) 공예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교사D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파악하고 현재 학교 현장

에서 공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D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교사D는 자신이 전공한 섬유와 목칠 공예 이외에도 대학교 재학 시절 금속과 도자 공예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교사D는 유리 공예와 가죽 공예와 같이 자신이 아직 배워보지 못한 공예에도 흥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과 옷칠, 도자 공예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언급하며 공예 교육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사D는 다양한 공예에 대한 경험이 깊은 만큼 공예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사D는 디자인, 일러스트를 취미로 작업하며, 미술 분야 전반에 흥미가 깊다고 하였다.

이어서 공예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사D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질문했다. 교사D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공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첫째, 공예는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다른 미술 분야는 장식,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인 것에 반해, 공예는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사용된다. 교사D는 이러한 공예의 일상성을 통해 미술에 부담감을 갖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삶 속에 미술이 녹아들어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보았다.

교사D : 공예는 특수한 목적이 없더라도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미술과목을 잘 그려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술과 과목을 할 때에 약간 ‘난 못 그리니까 이제 미술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첫 시간부터 부담 가지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미술은 뭐 그리는 회화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니까 실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D는 공예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공예를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D : 그리고 공예 수업 후에 학생들이 버리지 않고 직접 사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 속에서 실용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배우고 그리고 예술을 향유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공예 분야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공예 교육을 통해 진로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갖는다. 미술 교과에는 공예 외에도 다양한 미술 분야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파악하고 직업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나가는 시기를 겪는다. 이 때 학생들에게 공예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공예의 종류를 알아봄으로써 여러 분야의 진로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미술 분야 전반을 고루 교수하여 직업세계를 확장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D : 공예의 여러 분야 속에서 자신의 흥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공예 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학생들이 어리니까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정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미술 분야 속에 넓고 간단하게 다뤄보면서 '미술에 이런 다양한 공예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셋째, 공예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수시킬 수 있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교사D는 앞서 언급한 옷칠 공예 수업을 해보고 싶은 이유도 이러한 공예의 전통성에 있다고 말하였다. 대학교 재학 시절 교사D는 미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에게 전통 공예 기법인 옷칠 공예에 대해 발표한 경험이 있다. 이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옷칠 공예가 회화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등 옷칠 공예에 낮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사D는 공예 문화의 전통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또한 교사D는 이러한 공예의 전통성은 역사, 사회, 지리와 같은 교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교육 전반에서 전통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공예와 타 교과와의 융합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사D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공예 교육이 이러한 전통 교육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교사D는 현재 기술 산업의 발달로 전통을 다루는 미술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어 공예 교육의 비중이 낮아졌지만, 우리 고유의 것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오늘날 미술 교육을 통해 전통성을 갖춘 공예와 같은 미술 분야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사D : 디자인이랑 조소도 이제 전통적인 영역이 있긴 하지만 공예만큼 전통성이랑 밀접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규방공예나 왕골공예, 죽세공예같이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역사, 사회, 지리 같은 교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AI의 급속한 발달로 시각문화나 디자인 분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공예의 위치가 높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성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교사D는 다양한 공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공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며, 공예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예는

실생활과의 밀접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미술 교과의 장벽을 낮춰주고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기에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교사D는 이러한 실생활과 밀접한 공예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공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미술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공예 교육이 진로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 교육 측면에서는 공예품이 문화재로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전통성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예 교육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수업

이 장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D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예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교사D의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 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교사D는 현재 재직 중인 중학교가 아닌 과거 재직했던 미술 거점 고등학교에서 일일 체험 수업과 같은 형태로 공예 교육을 다룬 경험이 있다. 미술 거점 고등학교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학급을 별도로 편성하여 미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학교이다. 당시 수업에서 교사D는 공예 수업으로 도자 공예와 목공예를 다루었으며, 모두 공방과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해당 공예 프로그램에서 교사D는 목공예를 제외한 다른 공예 수업에서 학생

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느꼈다. 예외적으로 학생 만족도가 낮았던 목공예 수업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공예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형화된 공예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학생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공예 수업 사례에서 교사D는 부족한 시간과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인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외의 공예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교사D가 진행한 도자 공예 수업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학생들이 자주 언급할 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학생의 반응에서 교사D는 이후에도 공예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높은 학생 만족도가 교사의 이후 수업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D : 학생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저도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대학생이 된 후에 놀러오는데요. ‘공예 수업했던 거 재밌었다.’, ‘지금도 컵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건만 된다면 공예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공예 교육이 유독 높은 학생 만족도를 갖는 이유에 대한 교사D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교사D는 공예가 회화나 다른 미술 분야와 달리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미술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실생활에서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직접 제작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교사D : 평소에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새로운 재료를 만질 수 있다는 것부터 흥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교과는 애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데 왜 외워야하는지, 왜 시험을 봐야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거

든요. 그런데 공예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교사D의 경험에서 공예의 실용적 성격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자신이 제작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추가적으로 교사D는 공예의 제작 과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예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예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도 학생의 흥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공예 교육은 높은 학생 만족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술을 향유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

이어서 교사D에게 공예 수업을 구성할 때, 교과서를 참고하였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교사D는 일반 미술 수업이 아닌 특수한 성격의 비교과 프로그램 수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당시 교사D가 사용하던 씨마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부 참고하여, 학습 활동지에 교과서 도판과 설명을 첨부했다고 하였음을 밝혔다. 활동지 제작을 위해 교사D는 교과서의 현대 공예 작품들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반면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교사D는 교과서의 지면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과서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의 다양한 작품을 고루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사D는 이러한 풍부하지 못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교사D는 씨마스 교과서 이외에도 대다수의 교과서가 도자와 섬유 공예와 같이 주요 대중적인 공예는 담고 있지만, 이외에 주로 다루어지지 않는 공예 종류는 등한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느꼈음을 밝혔다.

이처럼 교사D는 다양한 공예 종류를 고루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D : 다양한 현대 작가들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많아서, 공부만 했을 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작가들 작품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가 다른 미술 분야도 다루어야 되니까, 공예가 많고 풍성한 도판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속 공예의 조금 기법을 설명하고 싶은데, 교과서에 금속공예가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자는 교사D가 느낀 교과서의 집필진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과거 교육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교사D는 교과서 집필진의 전공 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진의 전문성에 대한 교사D의 답변은 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D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집필에는 여러 전공의 전문성이 있는 집필진들이 고루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교사D는 집필진의 전문성과 별개로 지면의 한계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고 보았다.

교사D : 제가 논문 쓸 때 교과서 집필진 전공을 분석했어요. 그래도 고루고루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전문성도 있지만, 이제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미술 교과가) 주요 교과도 아니고 이제 공예 말고 다른 영역도 많다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교사D는 상세하지 못한 교과서의 내용으로 인해, 교사가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서 보완하거나 다른 교과서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교과서는 다양한 미술 분야의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공예 외에도

다른 미술 분야를 담아야 한다는 점과 공예 내에서도 다양한 공예 종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예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교사D : 공예가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수업하는 교사 입장으로서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공예가 교과서에 없으면 이제 찾거나, 다른 교과서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런 교과서 특성이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계획한 수업이 없으면 따로 찾아 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교사D는 이와 같은 교과서의 간략한 구성은 결국 학생들이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교사D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제작한 활동지를 통해 수업을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교사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의 활동지를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현재 미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미술 교과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D : 이제 교사가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없다면 거의 활동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안보고 활동지만 보니까, ‘교과서를 왜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술 교과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 표현 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론 수업 할 때만 가끔씩 들고 오라고 하고..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는 여러 세부적인 공예 분야와 다양한 기법 및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은 교사들에게는 추가 자

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준다. 또한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미술 교과서는 필요 없다는 인식까지 심어준 것이다. 이는 교과서의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교과서의 단편적인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현재 교사D의 학교에는 교사D를 제외한 총 한 명의 미술 교사가 추가로 있다. 동교 미술 교사는 대학교 재학 시절 금속 공예를 전공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사D의 동료 교사들과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 공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사D는 현재 재직 중인 중학교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 정규 미술 교과 수업에서는 공예 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는 현재 교사D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도 공예 교육을 다룰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는 공예 교육을 거의 다루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교사D : 일단 전체 학년 미술 수업 내에서는 거의 못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술 거점 학교에서 있을 때에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는 진행하지 못했고 1년에 2번만 60명 정도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였어요. 그마저도 지금 재직 중인 중학교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예 수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교사D는 정규 미술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학습의 기회가 아니면 공예 교육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방과 후와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 또한 1인당 예산이 부족하여 공예 교육을 다루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호소했다.

교사D : 결국 방과 후나 미술 거점 학교, 혹은 체험학습 같은 기회가 아니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과 수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과 후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도 1인당 예산이 충족하지 않아서 퀄리티도 조금 조악하기도 한 단순한 공예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깊이 있는 공예를 다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문제로 십자수나 매듭 공예 정도까지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교사D의 교육 경험에 따르면,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 공예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서 공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교과 활동에서도 학교 현장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매듭 공예와 같이 한정된 공예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예 교육의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추후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이 장에서는 현재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을 살펴보았다. 앞서 교사D는 공예의 전통성이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며, 공예품이 미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리, 사회 등의 타 교과와도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공예가 융합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간주되기에, 교사D에게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에 대한 생각을 질문했다.

교사D : 기술, 가정 교과와 바느질, 목공, 땀질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역사 교과랑 공예를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융합 교육으로 하게 된다면 한국사나 역사 수업에서 다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도판만 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수업이지만, 공예 수업과 연관해서 해당 이미지 속 도판, 옛날 문화유산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훨씬 이해도도 높아지고 체화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D는 기술과 가정 교과와 공예가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D는 기술과 가정 교과와의 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찬가지로 교사D는 공예가 전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며, 역사 교과와의 융합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교사D의 답변에서 공예 교육을 통한 전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사 교과와 공예의 융합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D는 공예 교육이 융합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D에게 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과를 다룬 경험이 있는지 질문했다. 교사D는 아직 다룬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융합 교육이 교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D : 다른 교과에서 해보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통합교과를 하려면 담당 교사가 서로 협조적이어야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협의를 통해 어떻게 수업을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교과마다 시수가 달라서 동아리 시간이나 학교 행사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반마다 시수를 맞춰야 하구요. 그래서 동 교과끼리 협의하는 것도 힘든데, 타 교과랑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즉 교사D에 따르면 융합 교육은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인 상

황들로 인해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D에 따르면 각 교과 별 시수가 다르다는 점에서부터 융합 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과목 별 시수도 다르고 학급마다 진도도 다르기 때문에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내 행사 및 비교과 시간을 계산하고 교사 간에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교사D는 학교 현장에는 많은 행사와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급마다 교과의 진행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밝혔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한 교과 간 협의부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에 대해 교사D는 그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비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과거 미술 거점 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당시의 경험에서 교사D는 공예 교육이 높은 학생 만족도와 같은 충분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는 공예 교육을 다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공예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교사D는 이와 같은 정규 미술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도 공예 교육의 어려움이 있기에, 한정된 공예 분야만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서도 공예 교육을 위한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공예 교육에는 여러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파악할 것이다.

###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이 장에서는 교사D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앞서 교사D는 목공예 수업 당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현재 중학교에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시수와 예산 부족을 포함하여 공예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시수, 예산의 부족

교사D는 현재 중학교는 일주일에 한 시간정도의 미술 교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술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현재 미술 교과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시험 기간 등의 여러 사유로 미술 교과 시간을 대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미술 교육에는 시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D : 일주일에 거의 1시간씩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많이 부족해요. 시험 기간이나 학교 행사, 아니면 갑자기 창의적 체험활동의 날이라고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중간고사 수행평가까지 한 4,5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45분 수업이니까, 공예 수업을 한다고 해도 재료 배부하고 이제 활동 해보려고 하면 수업이 끝나는 식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교사D는 과거 목공예 수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예는 대부분 정해진 재료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사D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계획과 발상을 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지만, 현재는 1시간 밖에 줄 수 없어서 원활한 교육이 힘들다는 것이다.

교사D : 목공예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사각형 형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창의성을 표현하려면 학생들이 어떤 도안을

그럴지 생각할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이제 학생들도 구상하고 발상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밖에 없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예 수업은 시간적 문제로 창의성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술 교과는 1시수로 공예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교사D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정해진 틀과 재료만을 사용하기에 학생들이 창의성을 표출하기 어렵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라도 학생들이 독창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수 부족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주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교사D는 예산의 한계가 공예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에 대해 교사D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사D는 학교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재료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은 정해진 도안에 맞춰서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예산 부족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획일화되고 축소된 공예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교사D : 학교 공예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드러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화 수업은 자기 생각을 상상해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이러면 되게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틀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예 수업은 학교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재료를 주로 써서 틀이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것들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주어진 도안에 맞춰서 제작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앞서 교사D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공예 교육

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정확히 현재 교사D는 학생 1인당 5000원 이하의 예산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는 공예 수업 외에도 타 미술 분야 수업조차 어려울 정도로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D는 현 상황과 달리 과거 미술 거점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현재의 10배 가까운 금액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공예 교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D : 미술거점 학교는 예산으로 따로 일정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공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중학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예 수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구요. 지금은 프린트해서 색연필로 칠하기 정도까지밖에 진행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마저도 색연필도 거의 닳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한다는 것부터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어서 교사D는 미술 거점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따오지 않는 경우인 일반적인 학교 상황에서는 학생 1인당 주어지는 예산이 부족한 편이라고 느꼈다. 이에 교사D가 언급한 교육청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교사D는 교육청 지원사업의 경우, 대다수의 공립학교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실정임을 밝혔다. 이는 신청과정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교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사D : 교육청 사업을 따오면 좋은데 되게 번거로워요. 관련한 지원계획서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실이랑 협의해서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도 논의해야하고 받아오고 사용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사업을 따오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 전체가 동의를 해야하고 교사들부터 관리자까지 굉장히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사업을 좀 따오자.’ 이런 진행할 수 있는데, 교사가 하고 싶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공

립은 5년마다 학교를 이동하는데, 사립학교는 구성원들이 매년 같으니까 구성원들끼리의 지속성이 좋아서 사립학교는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편이구요.

교육청 지원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전 교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사실상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의 구성원이 매년 교체된다는 점에서 교사 간의 교류와 지속성이 비교적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교사D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만 교육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사립학교는 폐교 위기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는 폐교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폐교의 위험성과 동떨어져 있으며 교사들도 일정 기간 재직 후에 다른 학교로 발령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육청 지원사업은 몇몇 학교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교육청 지원사업 외에 어떻게 부족한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D는 예산을 측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는 듯하였다. 교사D는 현재 학교에 주어지는 예산의 규모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측정 방법에 대해 교사D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하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교사D : 학생 1인당 예산을 측정해서 처음부터 넉넉한 예산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원수량 관계없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있는 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연합형 수업, 교과 특성화 수업, 미술 거점 수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학생 1인당 예산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써야하니까 재료도 엄청 많이 사고 다 배부해줬어요. 그런데, 대규모 학교면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줘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만큼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줄어들고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가 교과 특성화, 미술 거점 수업 등 보다 다양한 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때문에 현재 예산 측정 방법이 학생 수가 아닌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결국 소규모 학교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D의 답변과 같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측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공예 교육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나아가 공예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 문제를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교육청 지원사업 또한 복잡한 절차와 공립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청 지원사업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②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미술 교과의 표현 영역에서는 교사가 직접 수행과정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와 수행을 돕는 직접교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교사D는 특히 공예 교육에서는

직접교수법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제작 과정을 피드백해주고 오류 상황에 대해 빠르게 점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공예의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 수정이 어렵고 학생들의 실수가 자칫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D는 직접교수법을 적용한 원활한 공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학생 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D : 공예 교육을 하려면 일단 적은 학생 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사 당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직접교수법을 한 명씩 다 보여주기도 너무 힘이 들고 이제 애들이 만들다가 오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과정을 봐주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1학기 때 진행한 판화 수업에서도 한 명씩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보니까, 6명씩 묶어가지고 다섯 조로 이제 한 명씩 보여주세요.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뒤의 조는 되게 늦게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예수업도 학생 수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사D는 많은 학생 수는 결국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D는 현재 많은 학생 수로 인해, 재료 배부부터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며 이외 정리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며 시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였다. 결국 본 차시의 표현 활동을 위한 시간은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이는 공예 교육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로 간주된다.

공예 교육은 이와 같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 연령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술 교과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D는 공예가 많은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포함한 학생의 수준, 장소 등의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었을 때 공예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교사D : 학교 환경, 학생 수준, 수업 시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해요. 공예 수업은 이제 회화 같이 간단한 재료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서 현실적인 조건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수, 학생 수준, 시수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공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 교육은 그 자체의 성격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 중 교사D는 앞서 언급한 학교 환경과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교사D는 공예 수업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 공예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하며, 공예 교육에는 장소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공예 교육에는 장소와 학생 수를 포함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사D : 공예 수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이제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여기는 미술실이 2개이긴 한데 전에 재직했던 학교는 미술실이 없어서 제가 교실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물 떠오는 거부터도 어렵고 이제 화장실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요. 그런 활동도 어려운데, 공예 수업을 한다면 그 교실이 진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공예가 아니면 미술실에서도 진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예 교육은 학생 수, 학생 수준, 공예 수업 장소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교사D는 원활한 공예 수업 진행을 위해서, 평가를 위한 활동지, 장소, 시간, 재료 배부 등을 사전에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교사D의 공예 수업에서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방과의 협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존재했다. 이처럼 적절한 학

생 수, 충분한 인력과 같은 현실적 조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예 교육을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일반적인 교내에서는 정규 교과 시간 내에 공예를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 ③ 실기 연수의 부족

교사D는 전공자로서 공예 제작과정 상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예 전공이 아닌 교사들에게 공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를 경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였다.

교사D : 일단 아무래도 공예 수업할 때에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들이 겪을 오류점이나 시행착오 같은 거를 미리 예상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게 전공자로서 장점인데요. 공예 전공이 아닌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이제 공예를 전공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공예 간단한 거 과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예 연수를 통해, 교사에게 공예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돕고 공예 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 방법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D는 이러한 공예 프로그램 연수가 있긴 하지만 연수의 수가 적고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한 편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로 재직하지 얼마 안 된 교사들은 연수를 들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교원 연수는 미술 분야 전반을 가르치는 미술 교사에게 교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길러 나가기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공예 실기 연수와 관련한 수요는 있으나, 연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된지 얼마 안 된 저년차 교사는 원하는 연수를 듣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

사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D : 그래서 이런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연수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청해도 경쟁률이 높아서 수 백 명이 지원하다보니까 이제 저 년차 교사는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서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어서 교사D는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간 교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음을 밝혔다. 즉 공예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예 수업 사례에 대한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D는 이러한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사D : 교사 스스로 공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공예 수업 관련한 협의회나 수업 교류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위해서는 협의회, 전시 탐방 기회 같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사들이 직접 근처 학교나 지인들끼리 협의회나 수업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업무량도 많고 선생님들끼리 교류도 잘 안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술 교과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수업에서 어떤 미술 분야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교사가 선택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수업 내용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D는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공예 교육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여기는 듯하였다. 따라서 교사D는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협의회와 같은 수업 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많은 업무량과 낮은 교류로 인해 교사 간의 수업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로 교사 교류 활성화  
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교사D는 교육청에서  
공방이나 공예 관련 업체를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이는 교  
사D는 과거 미술 거점 고등학교에서 공예 공방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했던 수  
업에서 경험한 것이다. 교사D는 학교와 협업할 수 있는 공방 업체 및 기자재  
대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사  
D는 교육청 차원에서 공방과 중간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련 업체를 안내해준다  
면, 부족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D는 이  
러한 교육청 차원의 도움이 있다면 공예 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D : 교육청에서 학교랑 협업을 해서 대여할 수 있는 관련 업체나 공방을 정  
리해주거나 안내해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예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는 관련된 선배 교사도 없었고 교육청에서 안  
내해 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때  
문에 관련된 공예교육협의회나 선배 교사의 도움, 공방 관련된 중간 다리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공예 실기 연수를 마련해주고 공예 교육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현재 공예 실기 연수는 수요에 비  
해 적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교사D는 이러한 실기  
연수 외에도 교사 협의회를 통해 여러 공예 수업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  
회와 공예 교육을 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청의 지원이 있다면 공예 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표 10〉 연구 참여자 4 : 교사D의 연구 결과 정리

〈연구 참여자4 : 교사D〉		
1) 공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의 삶에 미술이 녹아드는 경험 제공</li> <li>- 진로 교육으로서 직업 세계의 확장</li> <li>- 전통 문화의 가치 전수 가능</li> </ul>	
2)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수업	① 학생들의 공예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화된 공예품 제작 : 낮은 만족도</li> <li>- 이외에는 높은 만족도</li> </ul>
	② 교과서 내 공예 단원(씨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면의 한계로 인한 단편적 구성</li> <li>-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인식 키워줌</li> </ul>
	③ 타 교사 수업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공예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미술 교과 수업에서는 공예 교육 불가능</li> <li>- 비교과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정된 공예 수업만 다룸</li> </ul>
	④ 융합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기술, 가정 교과와의 융합 가능성</li> <li>- 융합 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li> </ul>
3) 교사가 느낀 공예 교육의 어려움	① 시수, 예산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교과 시간을 교내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경향</li> <li>- 충분한 발상의 시간 부족 : 학생 창의성 계발 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부족으로 정해진 도안에 맞추어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래</li> <li>- 교육청 지원사업의 문제 : 복잡한 절차, 현 공립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li> <li>- 예산 측정 방식의 문제 : 사업 수에 초점을 두어 학급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측정</li> </ul>

	③ 많은 학생 수에 따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이 어려움</li> <li>- 안전 문제 및 시간 부족의 문제로 이어짐</li> </ul>
	④ 실기 연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의 종류와 수 부족으로 높은 경쟁률</li> <li>- 저년차 교사는 원하는 연수 수강 불가능</li> </ul>

## V. 논 의

이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한 후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와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공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교사 스스로 공예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사 협의회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 간의 교류 문화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공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밝혔다. 이와 같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공예 교육에 미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예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1. 교사 인식 개선의 방안

미술 교과의 수업 주제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미술 분야를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 주제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연구 결과, 교사 A, B, D의 경험에서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수업 내용 선정과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p.50, 74, 115). 학교에서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업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며, 다양한 미술 분야가 있다는 점에서 미술 교과는 내용 선정의 폭이 넓은 경향이

있다. 이처럼 수업 구성의 자율성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의 관심과 지식이 수업 내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연구자는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교사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류 문화 형성’과 ‘교과 협의회를 통한 학습 문화 형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류 문화 형성

전문적 학습공동체란, 개인이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조직차원에서 공유하여 조직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조직을 의미한다(DuFour, Eaker, & Many, 2010). 이처럼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직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친근감을 기를 수 있는 조직이다.

앞서 교사B는 미술 교사 외에도 타 교과 교사들과 함께 공예 공방 체험을 통해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교과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험을 통해 교사B는 공예의 제작 과정을 익히고 낯선 제작 기법과 미술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였다(p.74).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새로운 미술 분야의 탐색을 통한 교과 전문성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미술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교사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험은 새로운 미술 분야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인식의 개선이 공예 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2021)의 연구에서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미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수업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원했

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전에 교사 간에 교육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험을 통해 수업과 교육 관련 주제를 논의할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신동진(2021)의 연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교류가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교사 인식의 개선은 공예를 포함한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 주도하에 학점 인정 제도, 교원 연수 과정과 같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었다(최민석, 박수정, 2019). 다만 김택형 외 3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교사의 자발적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조직 문화와 전문성 개발에 긍정적이거나, 점차 정책에 의해 의무적 활동이 되면서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시간적 문제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의 인식 개선, 교류 문화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정책이 아닌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자는 김택형 외 3인(2024)의 연구에서 자발적 참여 형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동료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교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술 교과의 경우, 여러 전시회를 탐방하거나 다양한 미술 분야를 체험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의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를 수 있음과 동시에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증진시킨다. 다양한 미술 활동 중 공예는 안전 설비 및 넓은 공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외부 체험 기관 및 공방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교외에는 사람들의 취미 개발 등의 이유로 공방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적 이유로

교사B의 사례와 같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미술 활동에서는 공방 체험을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74). 또한 공예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성격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방 체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교사B : 다들 (공예 체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는 건 어려워하시지만 만드는 거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공예의 성격을 덕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교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공예에 대한 교사의 흥미를 기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형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 간의 교류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교사B의 사례에서 미술 교과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다양한 미술 분야의 체험을 독려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74). 미술 교사들은 이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미술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교과 지도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교사의 경험이 이후 있을 교과 지도 및 수업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술 교과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 활성화는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2) 교과 협의회를 통한 학습 문화 형성

교과 협의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교과 교사들 간에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교과 협의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한 종류지만, 앞서 제안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보다 교사

교류 문화보다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사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연구자는 교사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사 간의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과 협의회를 별도로 분리시켜 제안한다. 이러한 교과 협의회에서는 수업 공개와 수업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상호 배움을 불러일으키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수업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전현곤, 한대동, 2007).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예 교육은 예산, 시수의 부족과 같은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제약을 마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들 속에서도 원활한 공예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예 수업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교사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D는 교사 스스로 공예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교과 협의회와 수업 교류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p.115). 교사C, D에 따르면, 현재 미술 교과는 업무량 과다,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교사가 모든 공예를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74, 92, 115). 따라서 교사D는 교사들 간에 교과 수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업 교류의 사례로, 교사B는 자신의 미니어처 수업 경험을 밝혔다(p.115). 교사B는 과거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나눔에서 레진 공예 수업으로서 ‘미니어처 만들기’ 수업을 공유받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p.74). 이와 같은 교사B와 D의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수업 교류회 및 교과 협의회가 공예 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교사들 간의 수업 공유 문화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B와 D는 현재 교사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대부분 수업 나눔과 같은 교류회에는 참여하지 않다고 하였다(p.74, 115).

그리고 이러한 수업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교사들 간에 교류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이었다.

교사B : 요즘은 들어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맡으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관심을 쏟을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사D : 각자 일로 바쁘기도 하고 서로 바로 옆 학교도 선생님들끼리 교류도 잘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함께 언급된 교사들 간에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교사의 ‘불간섭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한다(전현곤, 한대동, 2007). 대개 교사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관심을 쏟거나, 타 교사의 수업을 피드백 하는 것과 같이 상호 협동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간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Lortie, 1975). 따라서 교사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성을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발적인 교사 간의 교류 문화를 형성하여, 교사 스스로 주도적인 관계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 업무량 또한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교사B, C, D는 교사의 업무량 과다에 대해 언급하며, 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p.75, 92, 115). 이처럼 교과 협의회를 통한 수업 나눔과 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결국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차원에서의 개선 및 지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정부 차원의 개선

연구 결과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가 시수, 예산 등 현재 교육적 여건에서 발생한 공예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다. 특히 부족한 시수 문제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공예 교육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협소한 교육 환경 문제도 연구에 참여한 총 4명의 교사 중 교사A, C, D가 공예 교육의 어려움으로 꼽았다(p54, 89, 113). 이에 연구자는 시수, 예산, 장소 문제를 포함하여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미술 교과 시수 문제의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가 미술 교과의 시수 부족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54, 64, 88, 107). 현재 미술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나타난 시수 감축으로 인해, 대다수 1시수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사A는 시수 부족의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다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p.54). 현재 교육 현장에서 공예가 표현 영역에서 다루어질 경우, 많은 재료와 용구들로 인해 안전 지도 및 정리, 용구의 사용법 등을 안내할 별도의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예 교육은 다른 미술 분야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공예의 성격으로 인해 현재 미술 교과의 1시간은 공예 수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D는 학생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미술 교과의 1

시수는 공예 작품을 구상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였다(p.109).

이러한 부족한 시수에 대해 교사C는 공예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블록 타임형태의 2시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p.88). 김태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블록 타임제는 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되는 과목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러 교과 중 미술 교과에서 블록 타임제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블록 타임제가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교사가 시간을 배분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술 교과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록 타임제가 미술 교과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술 수업은 블록 타임제가 아닌 1시수로 감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술 교과는 활동 중심의 미술 수업을 전개하기에 교과 시간이 모자라며, 자연스럽게 미술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축소된 시수로 인한 교육적 사례로 교사A는 1시수로 공예를 표현 영역에서 다루 수 없어서, 이론 수업의 형태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p.54).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서는 교과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였다(p.47). 또한 교사 C와 D의 사례에서는 정규 미술 교과 시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공예 교육이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p.85, 104).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를 다루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공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나아가 교육적 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수 감축으로 인해 나타난 공예 교육의 부정적인 사례는 현재 미술 교과의 시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 2) 예산 지원 제도의 확대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예산을 통해 미술 교과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 및 용구 등을 구비한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미술 교과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와 용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공예는 재료와 용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미술 분야이다. 이러한 재료에 대해 교사A는 공예 교육에 필요한 용구나 도구들이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p.54). 또한 교사B의 경험에서 타 교사는 공예 수업에서 도자 공예를 위한 장비를 주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작품을 지점토로 제작해 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p.70). 물론 교사B가 언급한 타 교사의 공예 수업 사례는 형태를 제작함으로써 학생들의 조형 능력을 길러주고 물성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실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예의 실용적 성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예산은 경제적 제약에 따라 공예 교육을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학교에서 원활한 공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에서 또한 부족한 예산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D는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서도 1인당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매듭 공예와 같은 단순한 공예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p.104). 이는 현재 미술 교과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으로는 일부 공예 작품만 제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공예 교육의 용구 부족 및 예산 부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용 키트를 구매하는 방법을 쓰는 것을 확인하였다(p.51, 63, 85, 90, 108). 물론 교육용 키트는 활동을 위한 재료 및 도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 공예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용 키트는 학생들에게 공예의 제작 과정 중 일부분만 경험하게 하는 것과 같이 공예 교육을 간략화시키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학생들은 키트 속 지정된 도안 내에서만 작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 키트는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 교사D는 교육용 키트에 대해 정해진 재료를 써서 틀에 짜인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p.108).

물론 이러한 교육용 키트를 사용한 수업은 제한된 예산과 시수로 인해 학생들이 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용 키트는 공예 교육을 간략화시키고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육용 키트가 공예 교육 활성화의 해결 방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용 키트의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용 키트를 활용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용 키트를 구비하는 것마저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교사B는 전체 학년 대상이 아닌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만 나전칠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p.70). 이는 현재 미술 교과 내에 예산 부족 문제가 공예를 포함한 여러 미술 교육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예산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들의 또 다른 방법은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사B는 교육청 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여 추후 있을 미술 수업의 재료를 구비하였다(p.71).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D는 교육청 지원사업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p.110). 교육청 지원사업은 행정 절차상 학교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

의와 학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많은 양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량이 많은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에서 재직하는 교사들의 근무 특성이 맞물려 현재 교육청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된 것이다(p.110). 오늘날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지정된 기한 동안 재직하고 이후 학교를 이동하는 환경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교육청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청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내 전 교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점 또한 일정 기간 근무 후에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교육청 지원사업의 절차 및 조건은 교사의 근무 특성과 교사와 학교 구성원 간의 낮은 결속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청 지원사업을 일부 학교에서만 활용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청 지원사업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만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략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 지원사업의 절차는 학교 현장의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연구 결과는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 예산 수립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예산 측정 방법이 학생 수가 아닌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D에 따르면, 진행 사업에 초점을 둔 예산 배정은 결국 소규모 학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도 하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p.111).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만큼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학교는 교과 특성화 사업 및 미술 거점 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 사업

을 추진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재 학교의 학생 수가 아닌 사업 수로 예산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제한된 교육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수립된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별 예산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아닌 학교 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 학교마다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다채로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장소와 환경의 개선

연구에 참여한 교사A, C, D는 학교 내에 공예 교육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54, 89, 113). 현재 학교 내 미술 교과의 시수가 1시수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표현 활동으로 1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차시에서 제작 활동을 이어서 진행한다. 이는 다음에 있을 수업 시간까지 동안 학생들의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결국 교사가 공예 수업을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p.54, 89). 교사들은 작품을 보관할 충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회화와 같은 평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장소 문제에 대한 사례로 교사D는 교내에 미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경험을 밝혔다(p.113). 이 경우 교사D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미술실의 부재는 교사가 재료와 용구를 챙겨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발생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실의 부재

는 교사가 학생들을 통솔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가령, 교사D는 회화 수업에서 학생들이 물을 받아오는 과정을 지도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꼈다. 이처럼 미술 교육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부재는 미술 교육 전반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공예 교육은 다른 미술 분야보다 더욱 다양한 용구와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리 정돈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공예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의 작품을 보관해 둘 별도의 장소도 필수적이다. 이는 공예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재 타 미술 분야를 진행하기에도 열악한 학교 환경에서는 공예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장소와 환경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의 문제는 현재 공예 교육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4명의 교사 중 3명이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열악한 교육 장소의 문제가 현재 공예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청 지원을 통해 학교의 환경적 설비를 마련해 주어 공예를 포함한 미술 교육 전반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교사가 더 이상 공예 수업을 기피하지 않는 교육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4) 외부 기관과의 협력 마련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공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국내 문화산업진흥원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국가부서별 협업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p.2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의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예 교육은 공예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예가

여러 종류의 기자재와 적절한 설비 시설이 요구되는 미술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교육부와 문화산업진흥원은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내 공예가 및 공방과 연결하여 공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연령에게 적극적으로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공예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은 달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함께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교사D가 미술 거점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진행한 공예 수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p.116). 앞서 교사D는 공예 공방과의 협업을 진행한 경험에서 공방 업체와 기자재 대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하였다(p.116).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D는 교육청에서 관련 업체나 공방을 정리한 문서를 제공해 준다면, 교사들이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교사D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교사들은 공예 교육 관련하여 협업이 가능한 공방이나 업체를 직접적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D는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지 않으면 안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협업 가능한 공방을 찾아보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교사D : 공예 교육과 관련한 업체를 교사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전달해 주는 건 못 봤고요. 만약에 안내가 있더라도 교사가 교육청에다가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현재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다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에 따르면, 2022년 공예교육 사업에서 전국 10개의 수행단체에서 140여 개의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분명히 적지 않은 수이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방 및 지역 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관련 공예 프로그램 및 공방 업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와 교사들에게 공예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공예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는 해당 공예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공방과 함께 진행할만한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학교 내 공예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예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학교 내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학교 공예 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교원 실기 연수의 확대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는 공통적으로 교원 실기 연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p.56, 74, 91, 114). 이는 연구 결과에서 교사A, B, D가 교사의 관심과 흥미가 수업 주제로 이어진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깊다. 교사A는 실기 연수를 통해 교사가 다양한 미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p.57). 즉 공예 경험이 적거나 없는 교사들에게 공예 실기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예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예와 함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미술 분야에 대한 흥미 또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실기 연수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이 뿐만 아니다. 교사B는 실기 연수를 통해 재료 및 용구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p.75). 현재 미

술 교과에 다양한 미술 분야가 있는 만큼, 각 분야에 맞는 여러 용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용구를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교사는 용구 사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예를 전공한 교사C와 D는 공예 실기 연수를 통해 공예의 과정을 익힐 수 있고 학생들에게 더 쉽게 공예를 알려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92, 114). 이와 같이 교사가 직접 공예에 대한 경험을 익히는 것은 공예 교육의 확대 및 질적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교원 실기 연수의 수와 종류 모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D는 이러한 교원 연수가 수가 적고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보았다(p.115). 마찬가지로 교사C도 이러한 교원 실기 연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p.88). 교사D에 따르면 몇 되지 않는 교원 실기 연수마저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 교사 및 교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년차 교사들은 해당 연수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p.115).

오늘날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술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미술 실기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교과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는 부족하다(p.31). 연구자의 조사 결과, 현재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교과별 전문성 신장이나 실기 연수보다는 디지털 교육, 다문화, AI 등의 학교 현장 중심의 연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p.31). 물론 교사들이 다양한 미술 분야를 폭넓게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교사들이 모든 미술 분야를 자유재로 다룰 수 있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교사들의 미술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교원 실기 연수 프로그램의 수와 그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았다.

## Ⅵ. 결 론

공예는 심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실생활과 밀접한 미술 분야이며, 수공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러한 공예의 성격은 오늘날 미술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위한 미술 교육과 맞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공예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미술 교육 분야인 것이다. 이러한 공예의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과거 고등학교 재학 기간까지 공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공예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중등 교육 기간 내 학생들도 공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중등 교육 기간 내 학생들이 공예에 대해 무지한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모인순(2012)의 연구를 통해, 과거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을 확인하고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앞서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2015,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공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교원 연수 및 공예 교육 관련 정책을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사가 받는 지원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재 중등 교육 현장에서 재직 중인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예를 전공한 교사와 타 미술 분야를 전공한 교사로 2가지의 표본집단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2가지 표본집단으로 선정된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공예를 전공한 미술 교사와 타 미술 분야를 전

공한 미술 교사들이 각각 가진 공예에 대한 인식과 공예 교육 경험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현장의 상황이 학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학교 현장에서 재직 중인 미술 교사를 통해 다양한 공예 교육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공예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을 확인하여, 학교 현장의 현 상황을 낱알이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연구는 추후 공예 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예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공예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적 대안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예 교육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론 수업의 형태로 다루어지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수업은 교육용 키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간략화된 공예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미술 활동을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현장의 여건 상 공예 교육은 교육용 키트의 사용을 통한 축소된 형태의 수업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공예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미술 교과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공예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표현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둘째,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공예 교육을 위한 재료 및 용구를 구비할 수 없다. 셋째, 학교 내 공간이 협소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보관하거나 공예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공예 수업 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안전 문제 및 정리정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현재 교과서의 단편적인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예의 제작 과정, 기법 등을 학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단편적인 구성으로 인해 교사들은 공예 수업을 위해 교과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업무량도 많은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공예 교육을 다루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섯째, 교원 연수 및 수업 교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없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공예 실기 경험을 쌓기 어렵고 성공적인 공예 수업에 대한 사례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교내 공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업이 가능한 외부 기관을 섭외하려고 할 때, 교사들은 외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공예 교육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미술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로 현재까지도 미술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융합 교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공예 교육에 적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공예는 교육적 필요성과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공예 교육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성공적인 수업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들이 자발적인 태도로 동료 교사들과 수업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술 활동을 함께하는 등의 교사 간의 교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연구자는 앞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업 교류회를 통해 교사 간의 수업 나눔 문화와 같은 형태의 학습 문화를 구축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스스로 공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공예 교육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사 차원의 노력 외에도 연구 결과에서 연구자는 교육 현장의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시수, 예산, 장소, 교원 연수 등 앞

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이 공예 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미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심각성을 표한 시수 문제의 경우, 미술 교과 수업 시수를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과 같이 2시수로 확대하여 블록 타임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규 미술 교과 시간 내에 다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공예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지원사업의 절차를 국공립학교의 교육 현장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복잡한 절차와 함께 국공립학교의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청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일부 학교만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별 예산 측정 방법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맞는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술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수업 장소와 환경적 설비를 마련해주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실기 연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공예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노작 행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촉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이다. 더불어 공예는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 심미적인 물건을 제작하는 미술 활동이다. 이렇듯 촉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실용적, 심미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예는 제작자의 삶에 여러 의미를 주는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다. 따라서 공예는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표현 활동이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술 분야이다.

현재 미술 교육에서는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획일화된 기계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공예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사 용가능한 심미적인 용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서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 분야로서, 공예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지금보다도 더 다루어 질 가치가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어렵도록 만 드는 문제들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공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B.클라인트 저, 오근재 역.(1994)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 DuFour, R., DuFour, R., Eaker, R., & Many. T. (2010). Learning by Doing. A Handbook for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Struass, A. L.,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김윤옥, 박성미(2009). 질적연구 실천방법. 교육과학사.
- 교육부(2015).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 교육부(2023). 20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 교육부(2022). 미술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3]).
- 류지영, 이은적, 안혜리, 이주연, 김선아(2016). 미술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수철, 윤미희(2011). 공예의 이해. 예경.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제2판). 박영스토리.
- 엄준상(1990). 공예개론. 서울산업대학 출판부.
- 월간미술 편집부(2017).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최공호(1996). 한국공예사의 이해. 재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실명제 사업내역서-행복한 공예교육.

## 〈 학술지 〉

- 김연희(2008). 탐구로서의 예술경험적 교육적 함의 -존 듀이의 질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Vol.41, NO- 63-91.
- 김항기(2005). 미술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의 탐색. 美術教育論叢 Vol.19 No.2 81-96.
- 모인순(2012). 미술교과서의 공예분석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회 Vol.9, No.2 3-17.
- 송숙남(1995).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 연구. 論文集 Vol.4, NO- 149-166.
- 신동진(2021). 미술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수업 개선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학교와 수업 연구 Vol.6 No.1 1-22.
- 신희경(2020). 그로피우스의 교육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우하우스 기초과정. 기초조형학연구 Vol.21 No.5 315-326.
- 이현양, 구승희(2019). 중등공예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점 분석: 공예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술교육연구 Vol.17 No.4 293-311.
- 윤혜진, 강인애, 강은성(2019). 메이커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사례: 메이커 정신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Vol.35 No.2 365-393.
- 전광수(2003). 미술과 교육에 있어서 감각력 향상을 위한 수공예 교육의 필요성.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4 No.1 8-159.
- 전현곤, 한대동(2007). 수업협의회에 기초한 배움의 학교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4 No.3 199-221.
- 최민석, 박수정(2019). 시·도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책 실태 분석: 2019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22 1077-10.

## < 학위 논문 >

Lortie, D(1975). Socia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경아(2006). 공예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진(2013).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에 기반을 둔 중학교 미술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호(2017). 블록타임제의 운영 실태와 인식 및 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열(2000). 공예교육과 현대공예의 양상.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양(2019). 한국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등 공예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현지(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공예영역 교육내용의 분석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숙(2009). 학과기초 미술교육(DBAE)과 시각문화 미술교육(VCAE) 비교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기타 자료 >

이상호(2022). 경주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공예작품 전시회' 개최.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1111500039>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Craft Education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and the Perception of Teachers in Korea

Choi Yeoung In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rafts are a field of art where practical items used in daily life are created based on utility and aesthetics. In particular, crafts hold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as they involve the creation of artworks through manual labor, especially utilizing human body parts. Crafts are considered an art of self-expression through the senses, as individuals express their emotions through actions and sensations from birth. Nowadays,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for life in educational setting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dividuals forming their own values in life amidst the standardized modern mechanical civilization. Therefore, craft education, as a field closely related to life in art education, helps students living in future societies to attribute value to their lives.

Through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aim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craft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settings and analyze various factors hindering craft education. Consequently, the researcher aimed to confirm teachers' perceptions of craft education and propos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craft education.

Based on past research, the researcher recognized that craft education is rarely addressed in educational setting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raft education in today's school settings, elucidate the current difficulties in craft education, and propose ways to activate craft education to achieve a higher quality of craft education than before.

The research involved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craft education covering the entire educational scene, targeting a total of four art teachers, two specializing in craft education and two in other art fields.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revealed personal experiences with craft education in the first chapter, along with past instances where craft education was not adequately addressed, and derived the research topic and problem. In the second chapter, the concept and history of crafts were examined, and the reasons why craft education is necessary in today's educational settings were explained. Additionally, through this chapter, an analysis of crafts covered in today's educ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policies and teacher training related to craft education were presented. The third chapter described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research, while in the fourth chapter, based on interviews conducted, the current status and difficulties of craft education were elucidated. In the fifth chapter, the researcher proposed variou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craft

education based on the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research participants, and synthesized the interview data and research results. Furthermor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presented to explain the constraints in interpreting the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ived craft education as having educational value due to its close association with practical aspects of life and art. Moreover, they recognized its suitability for career education, manual labor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ditional education, thus considering it an important field of art that should be prioritized in current art education.

Second, craft education in school settings is difficult to incorporate within regular art curriculum hours, hence it is primarily addressed through extracurricular programs. This is due to various problems in school settings, indicating a need for resolution.

Third, craft education is scarcely addressed in school settings due to insufficient hours, budget constraints, limited space, and large numbers of students. Improvement in hours, budget, and environment is demanded. Moreover, to provide craft education to a large number of students, collabor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and support from auxiliary staff are necessary. Additionally, to activate craft education in school settings, teachers themselves need to cultivate an interest in crafts. Efforts for improving

teachers' perceptions and government support through the expansion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the fostering of a culture of sharing lessons are necessary.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in the current school environment regarding craft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proposed the following solutions and educational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mpacting smooth craft education: First, to improve teacher awareness, teachers need to build a culture of exchange through voluntar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o increase interest in various art fields. Second, through subject councils, successful art class cases should be shared, and a learning culture should be formed, encouraging teachers to strive for their own 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as a government-level improvement measure, the current hours allocated to art subjects should be increased and improved with systems such as block scheduling. Fourth, budget support systems suitable for the school environment should be expanded, and the problems of existing budget support systems should be addressed. Fifth, appropriate facilities for art subjects should be provided within school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raft education is possible. Sixth, information on craft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through policies should be actively provided and promoted, and school-centered craft education programs should also be expanded. Lastly, the number and types of practical training sessions should be increased to help teachers gain practical experience in various art fields, including crafts.

Through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examined way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the educational field that affect smooth craft education. Additional discussions will be needed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activate craft education in the current school environment.

## 부 록

###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실태에 대한 인터뷰 질문 구성〉

#### 타 미술 분야 전공 교사

번호	체크 항목	세부 질문	
1	교사의 배경	1) 교사로 재직할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2) 공예 중 어떤 종류의 공예를 전공하였는가? 3) 현재 학교 내에 미술 교사가 본인 외에도 있는가?	
2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개인적으로 공예에 관심이 있는가? 2) 교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예란 무엇인가? 3)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공예 분야가 있는가? 4) 타 미술 분야와 차별화되는 공예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공예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현재 미술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안에서 공예의 위치는 어떠한가?	
3	학교 현장에서 공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예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공예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
		1) 어떤 주제와 교수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했는가? 2) 진행한 공예 수업이 만족스러웠는가? 3) 수업 진행 후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1) 왜 공예 교육을 다루지 않았는가? 2) 공예 교육을 다룬다면 어떠한 점이 편리하고 어떠한 점이 어려울 것 같은가? 3) 공예 수업 참관 시 학생

		<p>있다고 생각했는가?</p> <p>4) 공예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어떠한가?</p> <p>5)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p> <p>6) 타 미술 교사 및 비교과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7)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만족도는 어떠한가?</p> <p>4)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p> <p>5) 타 미술 교사 및 비교과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6)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4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어려움	<p>1)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혹은 예상되는가?</p> <p>2) 학교에서 공예 교육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는가? 다루어지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p> <p>3)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 <p>4)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가?</p> <p>5)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p>	

## 공예 전공 교사

번호	체크 항목	세부 질문	
1	교사의 배경	1) 교사로 재직할 자격이 얼마나 되는가? 2) 공예 중 어떤 종류의 공예를 전공하였는가? 3) 현재 학교 내에 미술 교사가 본인 외에도 있는가?	
2	공예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공예를 전공하였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예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가? 2) 교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예와 전공자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공예 분야가 있는가? 4) 타 미술 분야와 차별화되는 공예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공예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현재 미술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안에서 공예의 위치는 어떠한가?	
3	학교 현장에서 공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예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공예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
		1) 어떤 주제와 교수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했는가? 2) 진행한 공예 수업이 만족스러웠는가? 3) 수업 진행 후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4) 공예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어떠한가? 5)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	1) 왜 공예 교육을 다루지 않았는가? 2) 공예 교육을 다룬다면 어떠한 점이 편리하고 어떠한 점이 어려울 것 같은가? 3) 공예 수업 참관 시 학생 만족도는 어떠한가? 4) 교과서 내 공예 단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5) 타 미술 교사 및 비교과

		<p>대한 생각은 어떠한가?</p> <p>6) 타 미술 교사 및 비교과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7)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활동에서 다루어지는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p>6) 융합 교육으로서 공예 교육은 어떠한가?</p>
4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공예 교육의 어려움	<p>1)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혹은 예상되는가?</p> <p>2) 학교에서 공예 교육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는가? 다루어지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p> <p>3)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 <p>4) 공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가?</p> <p>5) 학교 현장에서 공예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p>	